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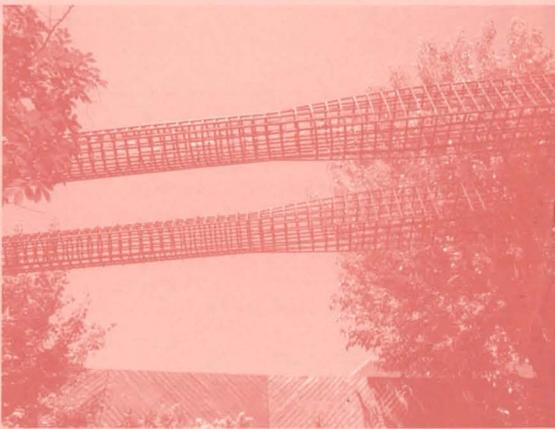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原流를  
찾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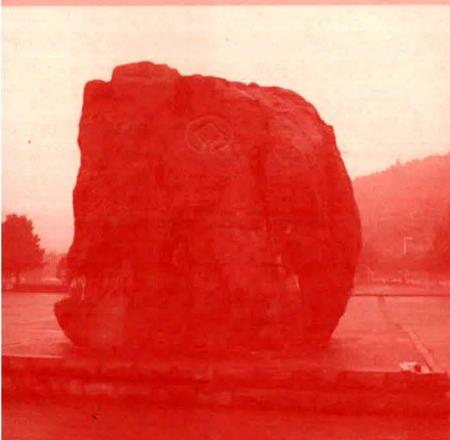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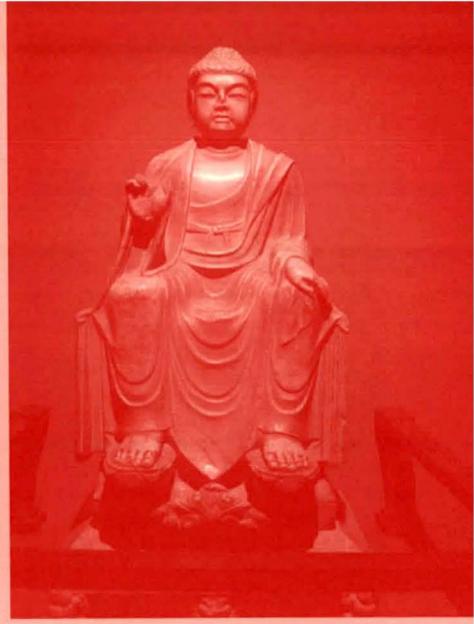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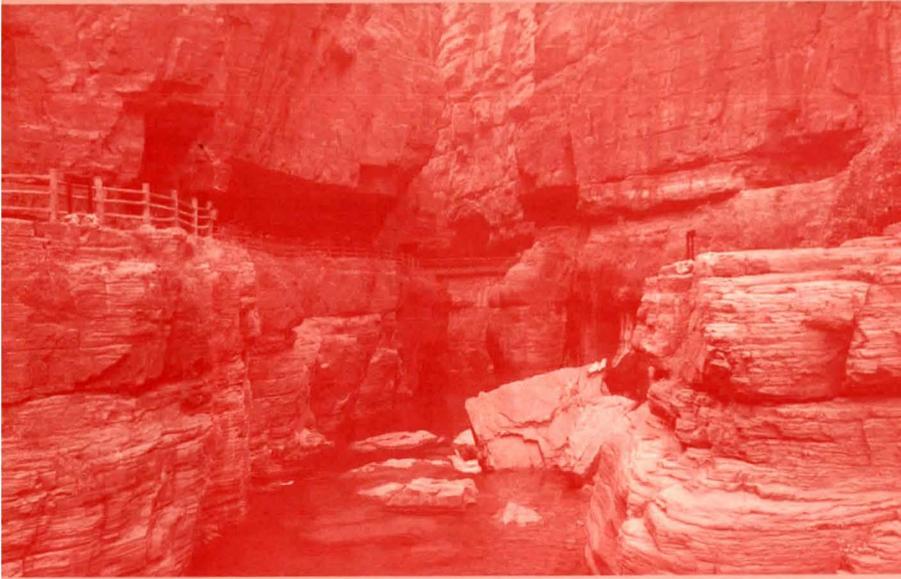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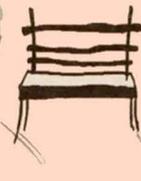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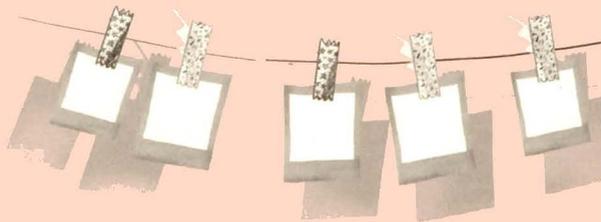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原流를  
찾아가다!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 Contents

## 06 권두칼럼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12 Part 1 사업개요

1, 2차 연수일정표 및 사업 개요  
연수지 정보

## 24 Part 2 역사도시의 현대적 의미를 말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유적의 현대적 콘텐츠화의 현장을 가다  
\_ 병마용과 화청지  
신화의 재탄생 \_ 금면왕조 / 소림사  
첨단과 서민생활의 이중주 \_ 왕부정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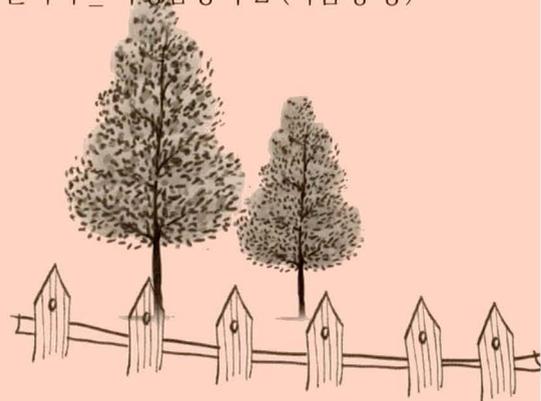
## 42 Part 3 역사도시와 현대도시의 빛과 그림자

현대 예술 메카의 빛과 그림자  
\_ 따산즈 798예술구와 차오창디 예술지구 탐방기  
베이징의 이색 풍경들 \_ 북경탐방기 1 (골동품시장 등)  
베이징(북경)의 과거와 현재를 말한다 \_ 북경탐방기 2 (자금성 등)

## 64 Part 4 다시 지역으로

연수 합평회  
함께 한 사람들

## 80 남는 건 사진이다





# CHINA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ARCTIC OCEAN

QUEEN ELIZABETH ISLANDS

★ ALASKA (U.S. STATES)

권두컬럼

CANADA

#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UNITED STATES

HAWAII (U.S. STATES)

MEXICO

MICRONESIA

MARSHALL

KIRIBATI

NAURU

SOLOMON ISLANDS

TUVALU

SAMOA

VANUATU

FIJI

TONGA



SOUTH PACIFIC OCEAN

#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프로크루스테스는 '늘이는 자' 또는 '두드려서 펴는 자'를 뜻하며 폴리페몬(Polypemon) 또는 다마스테스(Damastes)라고도 한다.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버렸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신이 저지르던 악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신화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및 '프로크루스테스 체계(Procrustean method)'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융통성이 없거나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여행과 관광은 다르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travel'의 어원은 '고통', '고난'을 뜻하는 'travail'이다. 여행이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쾌락이나 오락으로 여겨지게 된 건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에 이르러서다.

인간은 과거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nomad)의 시대를 거쳐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맞아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여행은 일상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동양문화의 원류(原流)를 중국으로 잡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해외 연수는 중국 고대문명의 발상지이자 황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고대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자(B.C 369~289)는 '성심(成心)', 즉 '구성된 마음'이라는 편견을 문제 삼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장자가 '성심'을 문제 삼는 이유는 특정한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 즉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초자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공동체 규칙을 배우면서 자라났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국의 공동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마음으로 성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고, 한국어를 쓰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산다. 이것이 바로 성심의 작용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어느 날 미국 중산층 가정의 정원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툭툭 치는 미국 어린이를 보았다고 하자.

이것은 미국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버릇없고 예의 없는 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심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사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공동체에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면화된 '성심'은 그 공동체에서 살 때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가거나 다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때 우리에게서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성심을 특정한 공동체의 흔적이라고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심을 초차아(Superego)로 삼아 타자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다.<sup>1)</sup>

즉,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구성된 마음, 즉 성심(成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은 인간의 독선적 아집을 깬다”는 말은 여행의 장점을 말해주는 오랜 속설이다.

“내가 로마 땅을 밟은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자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은 여행의 위대함을 웅변해 주는 증언이다.

혹자는 여행이라는 것의 ‘파노라마식 관계’<sup>2)</sup>라는 한계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행이 가지는 ‘직접 경험’의 권위가 가지는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연수는 하나라로부터 시작되어 상(은)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지는 문명의 발상지와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당대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화의 중심을 둘러보며 당나라 시대 장안(長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코스모폴리탄적 이상과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장안 거리를 하이라이트로 하는 연수였다.

이번 연수지인 하남성, 섬서성 일대는 주나라의 예를 근본으로 ‘예’를 회복하여 춘추전국시대라는 엄청난 혼란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공자(노나라)가 활동했던 공간이다.

종교와 정치가 일체화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춘추전국시대를 마감한 진나라의 짧은 역사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1) 장자&노자 《도에 판지결기》(김영사 강신주 지음 p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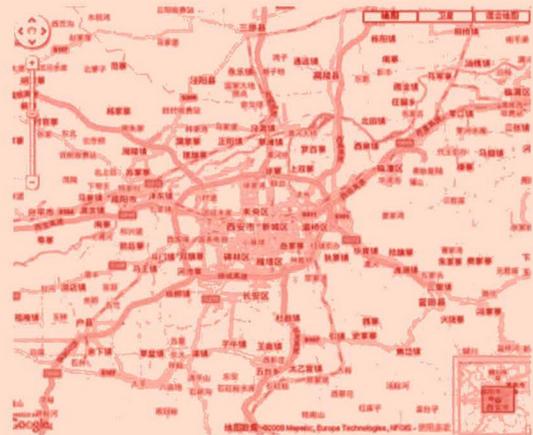
2) 여기서 말하는 파노라마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페레이드이다. 거기에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간의 얼굴과 액션이 지워져 있다. 그때의 풍경은 자연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생명의 거친 호흡과 약동이 생략된 ‘침묵의 소묘’일 따름이다. 이런 구도에선 오직 주체의 나른한 시선만이 특권 지위를 확보한다. 시선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대상은 전적으로 거기에 종속될 뿐, 도시인들이 보는 전원, 동양인의 눈에 비친 서구, 서구가 발견한 동양, 사실 이런 건 모두 외부자가 낯선 땅을 ‘훑궂’ 바라보고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허상이다. 그 허상이 막강한 힘을 확보해 한 시대와 사회를 ‘주름잡는’ 표상이 되면, 모두 그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그것을 대상에 위압적으로 덧씌우는 식의 악순환을 얼마나 반복했던지. 여행이란 이런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3년 14쪽)



대안탐을 중심으로 세계 사방으로 펼쳐진 오늘날 뉴욕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세계사의 중심에 있는 곳이 '장안(오늘의 서안)'이다.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안성(서안성)을 중심으로 성 안쪽은 동, 서양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문물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상업 지구가 들어서 있고, 주택가 및 당시의 궁궐은 성 바깥에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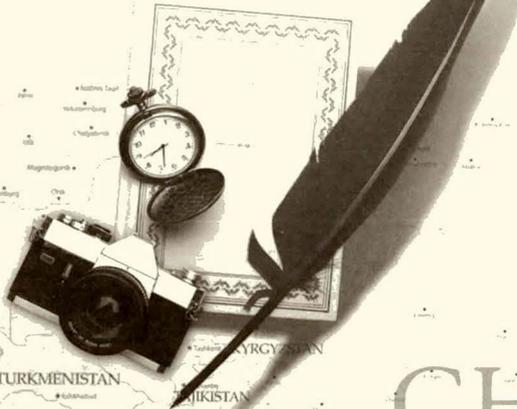
이러테면 세계의 중심이 '장안'이었던 셈이다. 장안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뻗어있는 당대 사람들의 열린 의식은 인구 구성, 도시 계획 등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다른 문화를 본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다른 역사, 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그 불편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시각은 더 비약적으로 확장된다.

때문에 여행의 어원이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Travail 인 것이 아닐까?



# CHINA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INDIAN  
OCEAN

ARCTIC  
OCEAN

QUEEN ELIZ  
ISLAND

★ ALASKA  
(UNITED STATES)

Part 1 사업개요

# 1, 2차 연수일정표 및 사업개요

★  
연수지 정보

HAWAIIAN ISLANDS  
HAWAII (UNITED STATES)

CANADA

UNITED S

MEX



SOUTH  
PACIFIC  
OCEAN



## 1차 연수

일시 2013. 7. 3 ~ 2013. 7. 6 (3박 4일)

장소 중국 북경 일대

참가대상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 사무국장 및 직원

제1일 7월 3일 (수)

천안문 광장, 자금성, 경산공원, 왕부정거리  
금면왕조 관람

제2일 7월 4일 (목)

만리장성(만리장성, 팔달령 구간), 용경협, 이화원

제3일 7월 5일 (금)

798예술지구, 견학차오창디 예술구 편자위안 골동품시장,  
올림픽 주경기장(나오차오) 주변 공원

제4일 7월 6일 (토)

귀국





# 2차 연수

일시 2013. 10. 30 ~ 2013. 11. 3 (4박 5일)

장소 중국 정주, 낙양, 서안 일대

참가대상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장 및 문화가족

제1일 10월 30일 (수)	초작 운대산(답폭협, 홍석협)
제2일 10월 31일 (목)	정주 하남성 박물관, 상성유적지, CBD유람선
제3일 11월 1일 (금)	등봉 소림사(전동차), 탐림, 소림무술쇼, 송산(케이블카)관
	낙양 용문석굴(전동차), 백거이묘, 향산사
제4일 11월 2일 (토)	서안 진시황릉, 병마용, 화청지, 서안역사박물관
제5일 11월 3일 (일)	귀국





## 사업추진경과

### 왜 가야 했는가

- 대도시의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 활동 영역 확대

### 무엇을 하려 하는가

- 대도시 문화원형 보존 및 활용 콘텐츠에 관한 중국 북경 사례와 서안지역 사례 탐방 및 비교
- 도시화에 따른 현대 건축물과 문화재 공존에 관한 국내외 정책 비교
- 문화원형의 관광 상품화, 공연콘텐츠화 사례 탐방을 통해 지역 문화원형 활용 방안 모색

### 어떻게 해야 할까

- 사전 오리엔테이션,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개별 연수  
\_ 원장단/국장단 평가회의를 통해 각 사례 공유
- 자부담 원칙 : 연수비용의 50% 지원/이하의 자부담
- 문화원형 보존 및 관광상품 활용 방안에 대한 해외 탐방



# ★ 주요방문지 안내

## 1. 중국

**국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국기** 오성홍기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이고 4개의 작은 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의 4개의 인민계급(노동자, 농민, 도시소자산, 민족자산 계급)을 상징한다.



**수도** 베이징(Beijing)

**면적** 9,600,000km<sup>2</sup>(한반도의 약 4배)

**인구** 1,343,240,000명(2012년 기준)

**언어** 푸통화(Mandarin / 普通話)

### 공휴일

元旦(위엔단/신정 설 : 1.1)

국제 부녀절(3.8)

청년의 날(5.4)

중국 공산당 창당일(7.1)

국경절(10.1)

春節(춘지에 / 음력 1.1)

노동절(5.1)

국제 어린이날(6.1)

중국 인민 해방군 건군일(8.1)

**정치체제**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93년 헌법 제1조 규정)

- 정부 형태 : 공산당 일당 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
- 의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 주요 지도자 : 국가 주석겸 당 총서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후진타오(Hu Jintao / 胡錦濤),  
국무원 총리-원자바오(Wen Jiabao / 溫家寶)

**행정구역**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자치구(중국 정부는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함)

4개 직할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

5개 자치구 - 내몽고, 신강위구르, 서장, 광서장족, 영하회족

2개 특별자치구 - 홍콩, 마카오

22개 성-화북구 - 허북성, 산서성

- 서북구 - 섬서성, 감숙성, 칭해성
- 동북구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화동구 -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복건성, 산둥성
- 중남구 -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둥성, 해남성
- 서남구 -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 지형(섬+산+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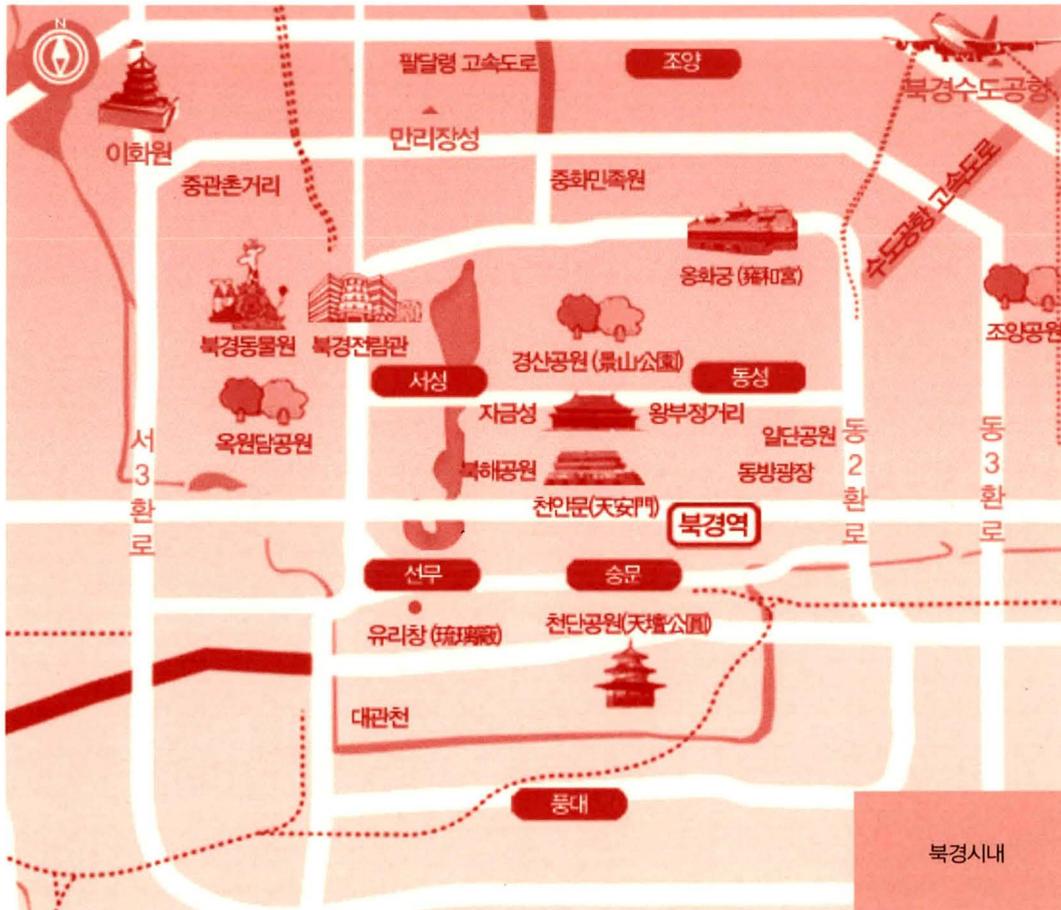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서고동저형을 띠고 있으며 산이 전 국토의 33.3%를 차지하고 있고 고원지대가 26%, 분지가 18.8%, 평야가 12%, 언덕이 9.9%이다. 총 5,400개의 섬이 있으며 타이완 섬(대만)이 약 36,000km<sup>2</sup>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34,000km<sup>2</sup>의 하이난 섬(해남도)이다.

## 2. 하남성(허난성, Henan, 河南省)

황하의 남쪽에 펼쳐진 곳이라 하남성(河南省)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고대문화의 발상지 중 하나로 고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6대 고도 중에서 낙양, 개봉이 이 성안에 모두 있고 성도인 정주도 3,5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이다. 이렇게 고도(古都)가 많아서 그런지 하남성에는 유명한 유적과 유적지도 많은데, 그 숫자만해도 130여만이다. 개봉의 소림사와 낙양의 용문석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며 중원문화의 발양지인 하남을 대표할 만하다. 총 면적은 16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약 9천 만 명이고 한족, 회족, 몽고족, 만주족 등이 전체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곳의 주요 농산물은 밀, 담배, 면화, 콩 등이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구조로 산과 평원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 3. 북경 (北京, Beijing)



정식 명칭은 베이징직할시[北京直轄市]이며, 약칭하여 '징[京]'이라고도 부른다. 화베이평야[華北平野] 북쪽 끝에 있으며, 동남쪽으로 보하이해[渤海]와 150km 거리에 있다.

전국시대에는 연(燕) 나라의 수도였으며, 초기에는 '지[蓟]'라고도 불렸다. 후에 요(遼)·금(金)·원(元)·명(明)·청(淸) 나라 등을 거쳐 중화민국 초기의 수도로서 8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1928년

시(市)로 정하고 이름을 '베이핑[北平]'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명칭도 다시 '베이징'으로 고치고 수도로 정해졌다.

면적은 16,410.54km<sup>2</sup>이다. 행정구역은 동청구[東城區]·시청구[西城區]·충원구[崇文區]·쉬안우구[宣武區]·하이톈구[海澱區]·차오양구[朝陽區]·펑타이구[豐台區]·스징산구[石景山區]·팡산구[房山區]·먼터우거우구[門頭溝區]·통저우구[通州區]·순이구[順義區]·창핑구[昌平區]·다싱구[大興區]·화이러우구[懷柔區]·핑구구[平谷區]등 16개 구와 옌칭[延慶]·미윈[密雲] 등 2개의 현(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와 대외 교류의 중심지이며 국제화된 대도시다.

1929년 교외의 저우커우옌[周口店]에서 발견된 60만~23만 년 전의 베이징원인[北京原人] 화석을 통하여 불을 사용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 이후 북방을 포함한 전국의 정치·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인재가 흥성하여 술한 역사적 인물을 배출하였다. 대표적 인물로는 원나라 희곡의 4대 작가 중 마치원(馬致遠)·관한경(關漢卿)·왕실보(王實甫) 등 3명이 이곳 출신이며, 《낙타상프[駱駝祥子]》로 유명한 현대 소설가 라오서[老舍] 등이 있다.

## 북경의 역사

베이징은 일찍이 화북(華北) 대평원과 북방의 산간지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역사상에 등장하였다. 베이징은 처음에는 '계(薊)'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고대취락의 위치는 현재 루거우차오[蘆溝橋]가 있는 곳, 즉 예로부터 용딩강의 도하지점(渡河地點)이 되어왔던 곳에 인접한 지추[薊丘]라는 작은 언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사이의 교통이 빈번해지자 그 교통로의 요충을 차지한 고대취락이 점차 발전하여, 주대(周代) 초에는 연(燕)나라의 도읍(都邑) 계성(薊城)이 그곳에 조영되었다. 진(秦)·한(漢) 이후 당(唐)나라 말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대체로 유주(幽州)의 치소(治所)로서 동북변방(東北邊方)의 정치·군사상의 요지가 되었다.

2차에 걸쳐 실패를 거듭한 한민족(漢民族)의 고구려(高句麗) 침략, 즉 수양제(隋煬帝)와 당태종(唐太宗)의 고구려 원정 때에는 다같이 계성(薊城)을 그 원정의 전진기지로 삼았고, 당태종은 고구려에 패한

뒤 전몰장사(戰歿將士)의 넋을 애도하여 민충사(愍忠寺: 지금의 베이징 외성에 있는 法源寺의 전신)를 건립하였다.

오대(五代)에 이르러 요(遼)나라는 938년에 이곳을 부도(副都)로 삼아 남경(南京)이라 하고, 요나라를 물리친 금(金)나라는 처음 연경(燕京)으로 부르다가 1153년에 이곳으로 천도하여 중도(中都)라고 고쳤다. 다시 몽골족이 남하하여 중도성(中都城)을 빼앗은 뒤 쿠빌라이(世祖) 때에 신성(新城)을 건설하고 국도로 정하여 대도(大都)라고 명명하였다.

몽골족이 중국을 통일하여 원(元)나라를 세우자 대도는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정치중심지가 되었고, 마르코 폴로는 칸발릭(Khanbalik)이라는 도시명으로 그 호화로운 번영상을 기록하고 있다. 명대(明代)에는 처음 국도를 지금의 난징[南京]에 두었다가 1420년에 영락제(永樂帝)가 이곳을 국도로 정하고 북경(北京)이라 하였는데, 베이징이라는 명칭은 이때에 비롯되었다.

명대에는 남문(南門) 밖에 외성(外城)을 구축하고 북부의 성역(城域)을 대도 때보다 축소하여 내성(內城)이라 불렀는데, 그 내·외성이 지금의 베이징성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淸)나라도 1644년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국도로 하였는데, 만주족과 한족의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내성에 만주족, 외성에 한족을 살게 하였다.

중화민국(中華民國) 시대에도 계속 이곳을 국도로 삼았으나 북벌(北伐) 완성 뒤 난징으로 천도하여, 이곳을 베이핑[北平]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다시 그 수도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 북경의 문화

베이징은 중국 최대의 학술·문화 중심지이다. 중국과학원의 각 연구소를 비롯하여, 베이징대학교·칭화[淸華]대학교·베이징사범대학·중국인민대학·중국민족학원 등 20여 개의 대학·전문학교가 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베이징도서관·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및 민족문화궁(民族文化宮)·혁명박물관·역사박물관·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많다.

고궁박물관은 옛 명(明)·청(淸)나라의 왕궁이었던 자금성(紫禁城)을 박물관으로 전용(轉用)한 것이고, 역사박물관·혁명박물관은 톈안먼[天安門] 앞 광장 동쪽에 1959년에 완공한 건물로, 같은해에 그 맞

은편의 광장 서쪽에 건립한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국회의사당) 등과 더불어 중국이 자랑하는 10대 건축에 포함된다. 그밖에 국제학술회의장인 과학대회당과 전시관(展示館)·극장·영화관 및 스포츠시설·방송사 등이 있다.



—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Part 2

## 역사도시의 현대적 의미를 말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유적의  
현대적 콘텐츠화의 현장을 가다

병마용과 화청지

신화의 재탄생

금면왕조 / 소림사 (이병권)

첨단과 서민생활의 이중주

왕부정 거리 (이병권)



RUSSIA

—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 CHINA

★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유적의  
현대적 콘텐츠화의  
현장을 가다 ▶ 병마용과 화청지

INDIAN  
OCEAN



#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유적의 현대적 콘텐츠화의 현장을 가다

## \_ 화청지와 병마용

문자가 이성적이라면 영상은 감성적, 직관적 감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은 영상세계의 감각적 속성, 놀이적 속성을 공간에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 방식 중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다.<sup>3)</sup>

CT (Culture Technology), 즉 문화기술은 2001년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

3) 최혜실의 <왜 스토리텔링인가?>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함미디어 문화콘텐츠신서9 2007. p10)

이는 산업과 기술의 개념에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발견으로부터 출발한다.

문화기술(CT)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고도의 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장한가〉는 당나라때 시인 백거이가 쓴 시로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과 안록산의 난, 그리고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양귀비를 죽게 한 당현종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천상에서 다시 양귀비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실제 당나라때 황제의 온천 별궁이었던 화청지는 안록산의 난 때 불타버렸고, 현재는 복원하여 양귀비가 사용하던 목욕장, 황제가 사용하던 연화탕, 당 현종의 아버지였던 이세민의 황제탕 등이 복원되어 있고, 양귀비의 대리석 동상이 멋지게 서 있다.

(그 외 한쪽에는 장개석이 국공 내전 시 묵던 숙소도 있다.)

무용극인 장한가는 장예모 감독이 기획한 것으로 매년 4월 부터 10월까지 저녁 8시 30분부터 약 80분간 공연을 한다. 좌석은 298위안(약 6만원), VIP석은 인당 20만원이다. 중국 물가로는 상당히 고가의 공연인 셈이다.

그런데, 주말이면 거의 빈 좌석이 없다.

이미 전통문화유산 속의 문화원형을 추출해 내 이를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활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문화원형 소재가 다양한 문화산업에 적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문화원형(화청지, 양귀비, 당현종)과 스토리텔링의 결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싶어 부럽다.

〈장한가〉는 문화유적인 화청지를 활용, CT(문화기술), 양귀비와 현종이라는 특별한 스토리텔링, 백거이의 탁월한 문학적 바탕, 현대적 감각의 문화콘텐츠로 구성된 장예모 감독 등이 만들어 낸 저작이다.

문화와 산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던 '감성'이 인터넷 발달로 인한 영상의 감각적, 놀이적 속성과 결합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문화콘텐츠의 생산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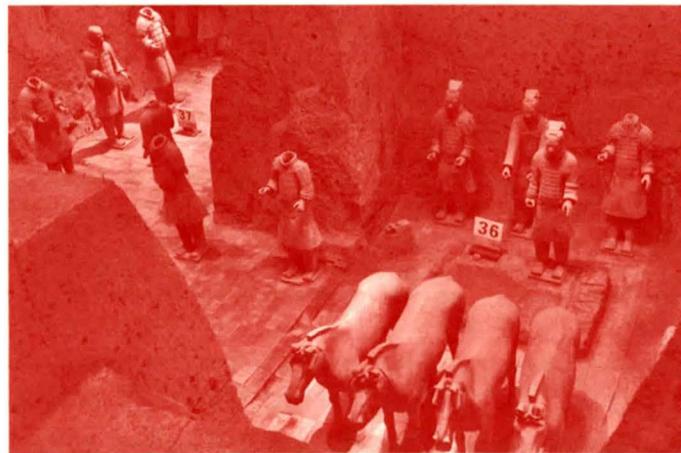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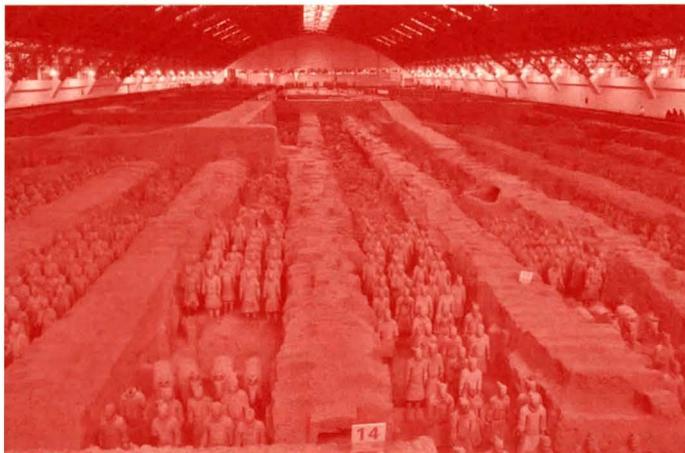
화예술과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융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장한가>는 찾은 듯 하다.

다만 이러한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아직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즉,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전략, 즉 '원 라이프 멀티 스토리 (One-life-Multi-Story)' 전략이 아직 중국 내륙의 서안까지는 도착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만큼을 이루어 낼 수 있을 만큼 중국의 문화적 수준이 성장해 있다는 것에 충분히 감탄하고 배울점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문화원,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발굴, 역사적 고증,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화

병마용은 1974년 중국 서안 외곽의 시골마을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 땅을 파던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양취위안이라는 농부는 땅속에서 발견된 도기인형의 조각과 쇠조각을 보고 이 사실을 신화사통신 기자(린안인)에게 알렸다.

이후 인민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산시성 고고학발굴팀은 1974년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발굴작업에 착수하였으며, 7월 21일 진시황릉에 딸린 병마용갱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발굴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면적 25,380㎡에 달하는 4개의 갱이 발굴되었으나 그 중 4호갱은 완성되기 전에 폐기된 빈 갱도였다.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은 1호갱은 길이 210m, 너비 60m, 깊이 4.5~6.5m의 총면적 12,000㎡로서, 본래 이 갱 위에는 길이 210m, 넓이 9칸의 회랑식 건축이 있었으나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매장된 전체 도용은 약 6,000개로 추정되지만, 진나라로 쳐들어온 항우에 의해 많은 도용들이 파괴되어 정확한 개수의 파악은 어렵다.

도용의 크기는 1.75~1.96m, 도마용은 높이 1.5m, 길이 2m로 실물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어졌다.

병사들은 겹옷만 입은 것과 겹옷 위에 갑옷을 입은 병사로 구분되어 있다. 무장한 무사의 엄격한 표정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도용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모두 컬러로 채색된 도용이었으나 발굴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되자 불과 몇 시간만에 모두 색이 바래버렸다.

1976년 4월 1호갱의 동북쪽 20m떨어진 곳에서 또하나의 병마용갱이 발견되었다.

이 병마용갱을 2호갱이라고 부르며 약 6,000㎡의 넓이이며 길이는 96m, 폭은 84m이다.

갱도는 정방형인 1호갱에 비해 L자 형으로 생겼다.

2호갱 역시 완전히 발굴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발굴되었다.

89대의 목제 전차와 이를 끄는 마용 356건, 기병용 116건, 안마 116건, 보병용 2000건이 발견되었다.

병사가 도열해 있는 1호갱과 달리 2호갱은 궁노병, 기마병, 전차병이 포진하고 있다.

1976년 5월 11일에는 1호갱 서북쪽 25m 떨어진 지점에서 520㎡ 넓이의 3호갱이 발견되었다.

3호갱은 군사 지휘부로 추정되는데, 장군의 것으로 보이는 채색된 전차 1량과 갑옷 입은 보병용 64건, 마용 4건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진시황릉 서북측에서 동마용과 동용이 딸린 대형 동전차가 1대 발견되었다.

세계의 8대 경이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이 병마용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 병마용들은 진시황 친위군단의 강력한 위용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나라의 군사편제 · 갑옷 · 무기 등의 연구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일부 도용에서 확인되는 북방 민족의 두발형식은 친위군단의 민족적 구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이 중국 대륙이었다.

규모도 규모거니와 병마용을 포함한 서안 곳곳의 돌맹이 하나도 현대의 것이 없다.



RUSSIA

—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 CHINA

★  
**신화의 재탄생**

▶ 금면왕조 / 소림사

# 신화의 재탄생

## \_ 금면왕조 / 소림사

### 신화(神話)의 나라 중국

신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신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승적인 설화'라고 한다. 따라서 신화는 설화, 전설 등으로 불리는 이야기들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나 주몽설화 등이 모두 신화에 속하는 이야기들이다.

이와 같은 신화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과 나라에는 무수히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동양 역사에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이룬 중국은 단연 그 이야기의 수와 내용에서 무궁무진하다. 바로 동양 문화의 중심이자, 그 정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한 일본만 하더라도 수천, 수만의 신을 섬기는 나라여서 고대 건국신화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이야기가 전한다.

이처럼 신화는 각 나라와 민족마다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전승되고 있다.

### 중국의 신화

중국의 신화는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내용도 풍부하다. 중국의 신화는 기원전, 신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삼황오제(三皇五帝)시대와 그 이전부터 발달했다. 익히 들어 본 수인(燧人)·공공(共工)·여와(女媧)·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제준(帝俊)·과보(夸父) 등의 신(神)들과 사적(史蹟)에는 신앙과 경외감이 충만하며 위령(威靈)을 노래했다. 이들 초기 신화는 천지개벽, 인류기원, 일월성신, 자연산천, 홍수, 부족전쟁, 토템 활동, 무술예의(巫術禮儀)의 다양한 이야기로 전한다. 이처럼 신화는 천지만물의 제반 현상에 대한 상고시대 사람들의 해석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중국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고대신화들이 종교·예술·문장·풍속의 기원이 되었다.

이밖에 천제(天帝)에 관한 신화는 진(秦)·한(漢) 시대의 방사(方士)와 그 후 도교가 흥하면서 차츰 옥황상제로 바뀌고, 서왕모(西王母)도 옥황상제의 황후가 되어 하나의 신선집단을 형성했다. 『사기(史

記』의 『오제본기(五帝本紀)』·『고조본기(高祖本紀)』에서는 신화를 제왕이 천명을 받은 근거로 삼아 정사(正史)에 집어넣었다. 신도(神)와 울루(鬱壘)는 갈대와 끈으로 호랑이를 묶고 흉악한 귀신을 막은 고대의 신으로, 후세에 문을 지키는 문신(門神)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문신인 진경(秦瓊)·위지경덕(尉遲敬德)의 전신으로, 이 풍속은 1940년대까지 중국의 민간에 전해 내려왔다. 이러한 것들은 후세의 문학에 영향을 끼쳐 단편으로는 지괴소설(志怪小說)인 『수신기(搜神記)』, 당·송의 전기(傳奇), 『요재지이(聊齋誌異)』 등이 있다. 장편으로는 『봉신연의(封神演義)』·『서유기(西遊記)』 등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위의 작품들은 도교·불교 고사와 민간전설을 많이 담고 있으며, 모두 신화의 아류이다.

중국 신화는 대부분 『산해경(山海經)』·『좌전(左傳)』·『여씨춘추(呂氏春秋)』·회남자(淮南子)』·『목천자전(穆天子傳)』·『사기』 등의 고전에 실려 있다. 이 기록들은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담겨 있는 관념과 사실 또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현대 학자들이 이들 신화를 정리·연구했는데, 루쉰(魯迅)의 『중국소설사략(中國小說史略)』, 마오둔(茅盾)의 『중국신화 ABC』, 원이뒤(聞一多)의 『복희고(伏羲考)』, 위안커(袁珂)의 『고대신화선석(古代神話選釋)』·『중국고대신화』 등이 있다. 또한 중국 소수민족들의 신화 근래 대량으로 기록·발굴되었는데 이들 이야기가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신화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 신화의 현대화

신화의 나라 중국에서 무수히 많은 신화와 설화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문화적 토양 아래 이들 신화와 설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진작시키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의 개혁개방이래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으로 주목되는 것으로 몇 가지 사례를 꼽아보면 신화를 현대의 뮤지컬로 만들어 대중공연으로 성황리 펼쳐지고 있는 금면왕조와 달마대사의 설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문화유산을 토대로, 문화적 자산을 콘텐츠화 하여 그 브랜드가치로 거대 문화기업으로 일신하고 있는 소림사의 변신은 주목할 만하다.

## 뮤지컬로 태어난 금면왕조

금면왕조(金面王朝, Golden mask dynasty)는 중국 북경의 신화를 모티브로 당대화한 대표적 뮤지컬



컬이다. 북경 여행의 필수 코스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환락곡 happyvalley 해피베리 테마파크)을 열었으며, 연출을 맡은 사람은 영화 '붉은수수밭'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적 영화감독이자 기획자인 장이머우(張藝謀, 1951~)가 맡아서 금면왕조가 작품성과 예술성, 그리고 흥행성을 고루 갖출 수 있었다. 특히 장이머우 감독은 베이징올림픽 공연을 연출하며 공연예술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선보인바 있다.

금면왕조는 중국 고대 신화 속 두 남녀의 낭만적인 사랑이야기를 주요 모티브로 고대 신화로 상징되는 전쟁, 상전, 위조, 경축, 달빛, 홍수, 제사, 환화 등을 8단계로 나누어 극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여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의 기본적인 이야기와 함께 극의 완성도와 표현력의 극대화를 위해 신화의 기본적 요소인 전쟁과 같은 모티브를 각 장으로 구성하여 신화의 단순한 이야기를 극으로 전환하며 공연 예술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문화가 가지는 기예(서커스)가 접목되어 제조적인 예술성으로 한층 화려하고 볼거리가 다양한 중국다운 뮤지컬로 승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면왕조에서 주목할 것은 기본 소재인 신화의 차용과 극을 구성하는데 각장에 중국신화가 가지는 기본 요소를 접목하고 아울러 중국문화의 기예적 요소를 가미하여 중국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대적 극작품으로 탄생시킨 점이다. 거기에 현대 중국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극작품의 연출이 동양적인 모습보다는 서구적 환타지에 가까운 연출이다.

### 달마의 소림사, 중국 무협영화의 중심이 되다

중국신화를 콘텐츠화하여 문화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소림사는 허난성(河南省) 덩핑현 샤오취산(小室山) 북쪽 기슭에 세워진 선사로 북위 태화 20년(495년) 창건하여 인도승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선종(禪宗)을 부흥시킨 명찰이다.

달마는 친촉국 왕의 아들로써 남(南)나라 양무제 때 중국으로 불교를 전파했다. 태화 10년(486)에 소림사에 온 달마는 동굴 벽을 보고 앉아 9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면벽9년) 후에 2대 조사인 혜가(慧可)에게 법을 전수하여 선종(禪宗)이 시작되었으며, 달마를 중국의 불교시조로 기록하고 소림사를 근원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선법(禪法)이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선(禪)이란 인도의 선나(禪那)라는 단어의 약칭이다. 원래 뜻은 사색(思索)에 잠긴 수련법으로 참선을 하며, 정신을 집중하여 조용히 앉아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참선을 위해서는 개인의 신체단련이 필수이므로 여기에 소림권법이 나왔다. 이 소림권법은 달마 조사가 소림사에 온 뒤 무기력한 승려들을 수련시키기 위해 창안한 18나한수(十八羅漢手) 권법이 바탕이 되었다.

소림사가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달마도 등으로 친숙한 인도 승려 달마가 소림사에 선종을 세워 중국불교의 모태가 된 것과 그가 창시한 소림사 무술이 중국 무림의 한 맥을 세웠기 때문이다.

중국무술은 지역적, 기술상으로 분류된다. 지역적으로 양쯔강을 경계로 하여 남쪽 지역(광둥성, 푸젠성)에서 번성했던 무술법을 남방무술(남권)이라 하고, 북쪽 지역인 황하유역에서 성행했던 무술(허베이성, 산둥성)을 북방무술(장권)이라 불렀다.

소림권법(少林拳法)은 남방무술의 대표적인 문파로 외가권(外家拳)이라 불린다. 이 외가권법의 특징은 기술단련이나 동작이 강하므로 강권이라 불리고, 그 수련 목적이 주로 근육 강화라는 점에서 외공권(外功拳)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소림사권법으로 소림나한권 소림금강권 소림당랑권과 같이 명칭 앞부

분에 소림이란 두 글자를 붙이고 있다.

이처럼 소림사 무술은 당대부터 중국 무술의 본산으로 사찰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무술을 매개로 중국 민족과 하나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중국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대두하여 소림무술학교를 열어 무술 전파는 물론, 7~80년대 홍콩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소룡, 이연걸, 성룡, 주성치 등 소림무술 익힌 스타들이 소림무술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대 히트를 하면서 소림사는 무술본산을 넘어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를 망라한 중국대중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소림사는 무술로 특화된 브랜드 가치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소림사방장(方丈)인 스용신(釋永信) 스님이 있다. 스용신 스님은 1998년 '소림사 발전 주식회사'를 세우고 소림사 관광 사업을 비롯해 사찰 내 화려한 무술 공연은 물론, 쿵푸 신발과 티셔츠 등 기념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였다. 또한 소림 영화 사업, 무술학원 운영, '소림 기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소림사의 변화에 중심에 있다.

2005년에는 '평중소림(風中少林)'이라는 무술 공연을 기획하여 미국에서 약 8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현재는 29개국 국가의 50개 도시에서 무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달마고사(達磨古事)가 담긴 쑹산의 조용한 사찰, 소림사는 소림사 자체가 브랜드인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콘텐츠기업이 되었다. 오늘날 소림사는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 중국식 자본주의를 나아갔듯 그 중심에서 소림사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 문화 중심에 서있다. 물론 사찰이 상업적으로 치중하는 것을 두고 비판도 있다.



RUSSIA

—  
2013년·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CHINA

★  
첨단과 서민생활의 이중주

▶ 왕부정 거리

INDIAN  
OCEAN

## 침단과 서민생활의 이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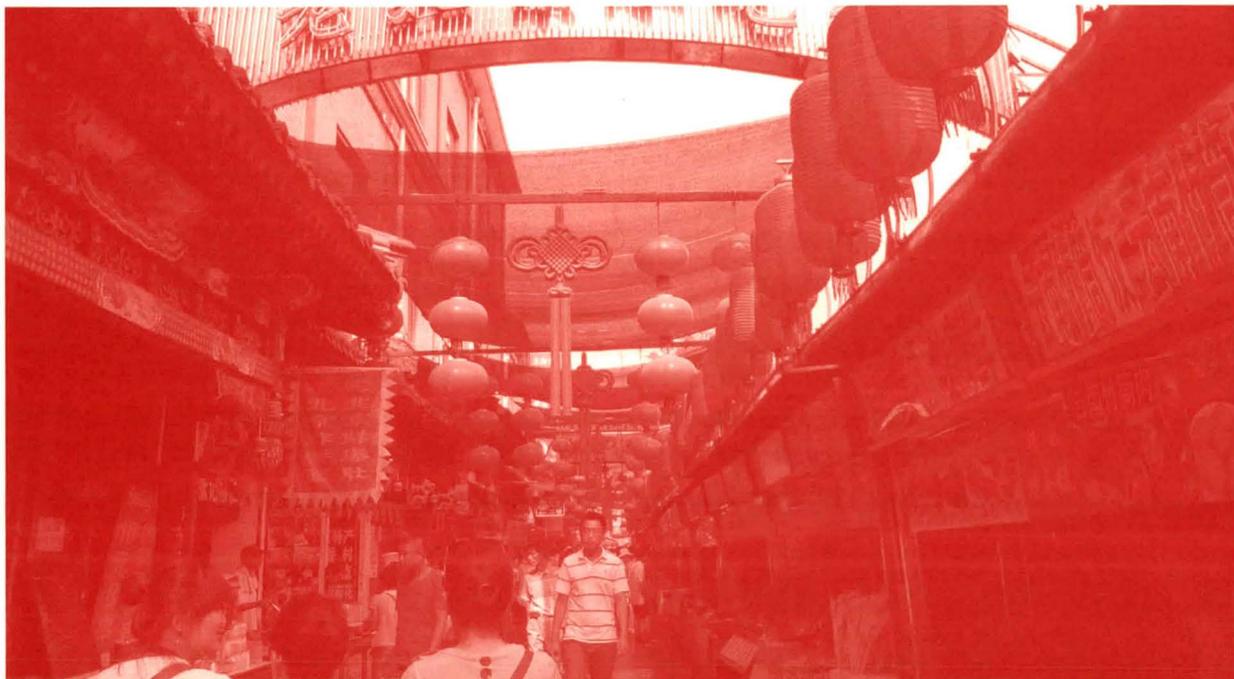
### \_ 왕부정 거리

#### 변화의 중심 왕부정(王府井)거리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의 중국식 자본주의가 정착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그 중심에 베이징이 있다. 베이징에서도 그 변화상이 시시각각 변화는 곳은 단연 왕부정거리가 아닌가 한다. 왕부정거리는 베이징 최대 변화가로 시 동편에 길게 늘어선 상점거리를 말한다.

왕부정 거리는 일찍이 원나라 때 수도(대도大都)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되었다. 이어 들어선 명나라 때에는 이 거리에 황실종친들인 제왕(諸王)들의 저택인 왕부(王府)가 들어서고 왕부에 속했던 왕부고정(王府古井)이란 우물이 발견되면서 왕부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왕부고정은 2000년 9월9일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우물로 깊이는 10미터, 수심은 4미터정도의 규모로 거리 한편에 보존되어 왕부정거리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다.



## 베이징의 명동 왕부정거리

왕부정거리의 규모는 약 1km가량의 거리 양편으로 약 100여개의 각종 상점이 들어서 있다. 그 중 3층의 규모로 기념품을 전문으로 하는 우의상점은 미국대사관과 인접하여 건물내 스타벅스, 피자헛과 같은 외국계 프렌차이즈 매장이 들어서 왕부정거리가 개혁개방의 중심지로서 그 변화를 선도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네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인 신화서점은 왕부정거리의 명물로서 대중의 지적소유욕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 베이징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 갈 정도로 유명하다.

또한 우의빈관(友誼賓館 Friendship Hotel)이라는 호화호텔이 자리하고 있어 베이징을 찾는 여행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을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부정거리의 서쪽에는 호화쇼핑몰이 즐비한데, 중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징백화점과, 동쪽으로 신동안시장(新東安市場)이 있어서 쇼핑 일변지이기도 하다. 신동안시장은 시장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네 시장이 아닌 백화점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 쇼핑몰 동방신천지(方新天地)에는 수많은 전문 판매점들이 모여 있어 중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유명 상품의 패션상품을 살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잘 찾아보면 대를 이어 그 전통을 살리고 있는 가게도 많이 있어 좋은 품질의 비단이나 차, 골동품 등을 살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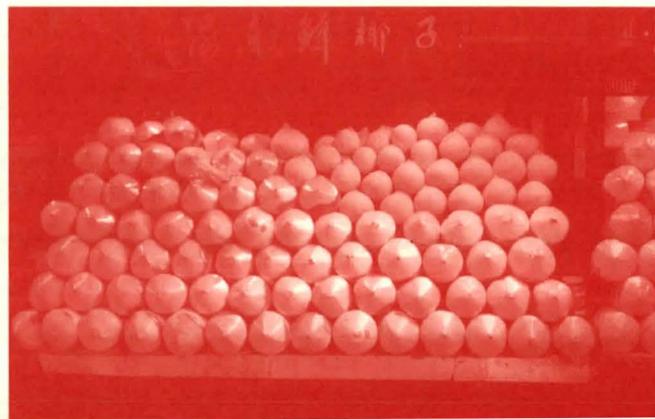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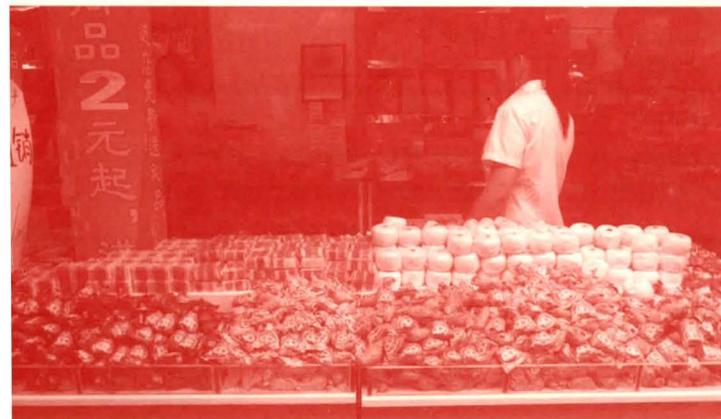
왕부정거리는 황실종친들의 저택인 왕부가 위치했던 곳이라 고풍스런 중국의 전통고택인 사합원(쓰허위엔, 四合院 건물형태가 'ㅁ'이다.)등이 남아있어 베이징의 과거가 현존한다. 마치 경복궁 동편의 북촌한옥마을을 연상시키는데, 최근 개발붐을 타고 점차 전통고택이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대식의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고급주택가가 위치하며 베이징의 독특한 지역명소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왕부정거리는 유리창거리가 우리의 인사동거리와 비교되는 것처럼 우리의 명동으로 비교되며 상업거리로 백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 다양한 먹거리의 천국 왕부정거리

이밖에 왕부정거리는 많은 상점과 빌딩 등의 쇼핑에 빠지지 않는 먹거리도 가득한 곳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간식거리가 있는 왕부정거리는 역시 음식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을 대표한다. 고풍스런 중국의 전통문을 지나 좁고 긴 골목으로 들어서면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과일 꼬치며,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전갈꼬치 등, 진기한 음식이 펼쳐져있다. 정말로 “다리가 달린 것이면 책상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에 대한 우스갯 소리처럼 상상 이상이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불빛으로 여행객들을 불러모으는데, 굳것질을 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여유가 베이징여행을 더욱 즐겁게 한다. 다양한 꼬치와 함께 베이징의 대표요리인 북경 오리구이 전문 요리점과 각종 특색 있는 요리집, 국제 패스트 푸드점들이 위치하여 중국의 전통음식 뿐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패스트 푸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일번지다. 이러한 야시장은 주중에는 21시 30분, 주말에는 22시 30분에 불이 꺼진다. 야경을 구경하려면 조금 일찍 둘러봐야 한다.





诺博茶叙 茶&画空间  
 ADD: 798艺术区... TEL/FAX: +86-010-59789976

东京画廊 BTAP 北京国际美术工程  
 TEL: GALLERY +8610 4957 3245

Seoul Junction

ARTSHOP ARTOPAL

若水堂: 留住最后的油纸伞  
 Chinese traditional umbrella for rain

CAVE CAFE 洞房咖啡

凡轩鸣一 服饰

MADE IN CHINA

玛比 玛斯德比当代艺术中心  
 Contemporary Art Center

LENGYAN TATTOO

YUN DONG CHENG SPACE FOR CONTEMPORARY ART

非洲艺术馆

—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 Part 3 북경탐방기

## 역사도시와 현대도시의 빛과 그림자



### 현대 예술 메카의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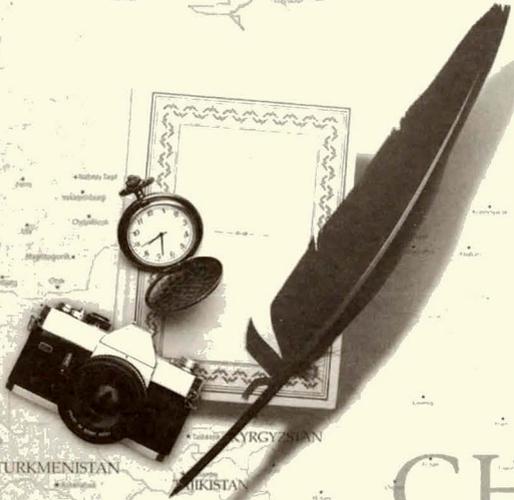
따산쯔 798예술구와 차오창디 예술지구 탐방기 (류설아가자)

### 베이징의 이색 풍경들

북경탐방기 1 (골동품시장 등)

### 베이징(북경)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다

북경탐방기 2 (자금성 등) (이병권)



RUSSIA

2013년·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CHINA

★  
현대 예술 메카의  
빛과 그림자

▶ 다산프 798예술구와 차오창디 예술지구 탐방기  
(류설아 기자)

INDIAN  
OCEAN

AUSTRALIA

# 현대 예술 메카의 빛과 그림자

\_ 다산쯔 798예술구와 차오창디 예술지구 탐방기 (류설아 기자)

## 들어가며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가 열광하는 화가, 피카소. 하지만 그를 단숨에 제친 작가가 있다. 중국인 작가 장다첸과 지바이스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경매 낙찰총액에서 판매 총액 약 3억2000만달러를 올린 피카소를 약 5억달러(장다첸)와 약 4억4500만달러(지바이스)로 가뿐히 제쳤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현대 미술계는 국제 시장에서 연신 높은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홍콩에서 열린 국제 경매 시장에서 중국 현대미술가 차이귀창의 작품은 약 88억 7500만원에 팔리며 중국 현대 미술계 최고 낙찰가를 갱신했다. 중국은 또 미술시장 분석회사 '아트프라이스'가 2010년과 2011년에 발표한 세계 미술시장 1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이러니한 것은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중국 작가 대부분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예술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가로서 정부를 비판한 작품들이 중국을 세계 현대미술계의 한 중심축으로 세운 것이다. 이들을 탄압했던 중국 정부가 문화를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기존의 규제를 풀고 오히려 값 올리기에 지원사격한 것이 주요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현대 여기에는 중국 정부와 기업, 개인 등 중국내수시장의 막강한 경제력과 구매력이 거품을 형성했다는, 너무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품론'이 반드시 뒤따른다.

이처럼 예술가들의 자생적 힘과 정부의 지원(혹은 간섭)이 뒤엉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 현대 미술. 다산쯔798와 차오창디 예술구는 이 같은 중국 현대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드러내고 미래를 가늠케 하는 지점이었다.

## 창조적 발생지에서 소비적 관광지로 전락한 다산쯔798

지난 8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해외연수단이 방문한 다산쯔798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작품과

판매 상품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다산쯔798에 들어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유명 갤러리와 카페, 아트샵, 레스토랑 등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래 다산쯔798는 관광지가 아닌, 중국 현대미술의 발생지이자 중심지였다. 그보다 앞선 1950년대까지는 군수공장 지대였다.

총 면적 약 60㎡에 달하는 다산쯔798는 구소련의 지원으로 형성된 무기공장 밀집 지역이었다. 베이징 동북부의 차오양구에 위치하며, 숫자 798은 우리나라의 번지수로 생각하면 된다.

냉전이 끝나고 베이징 성곽 확장에 따라 다산쯔의 일부 지역이 중국 도심에 포함되면서 필요성이 사라진 무기공장이 하나둘 철수했다. 이 중 798을 비롯한 여섯 개의 공장에는 전자타운을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흐지부지되고 다시 버려진 공간이 됐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반체제적 성향이 두드러진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798공장을 임대해 작업실과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가 중국 현대 미술을 주목하게 만든 출발점이기도 하다.

다산쯔798에 발을 디딘 예술가들은 건물을 새롭게 짓는 대신 공장과 창고를 특유의 감각으로 개조했다. 이들은 또 개성만점 공간만큼이나 독특한 그들의 작업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업실을 공개했다. 표현의 자유와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뜻을 모아 예술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샤오강처럼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주자도 이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들의 비판의식이 두드러진 작품들은 보는 이를 불편하게 때론 숙연하게 만들었다. 날 선 도전정신이 빛낸 생동감은 국제적 화랑과 컬렉터 등 국내외 관람객을 매료시켰다. 그렇게 다산쯔798는 불과 2년여 만에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예술구역으로 성장했다. 자생적으로 예술구가 탄생한 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반체제 성향의 예술가들의 해방구가 된 다산쯔와 이곳으로 향하는 세계의 이목이 마냥 좋을 리 없었을 터.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했으리라. 결국 2006년 정부는 다산쯔798를 최초 10개 문화창의산업 집중구 중 하나로 지정, 정비사업을 벌였다.

관(官)의 개입과 함께 자본도 몰려들었다. 그것은 곧 빛이 됐다. 다산쯔798를 예술가들의 창조적 발생지에서 소비적 관광지로 전락시켰다.

창작열을 불태웠던 가난한 예술가들은 높아진 임대료와 '베이징판 소호'로 불리며 당초 공간 형성 취지가 사라진 다산쯔798를 떠났다. 그 빈 공간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자본을 확보한 대형 화랑과 현대식 화려한 편의시설이 채웠다.

도문화원연합회 해외연수단이 방문했던 8월, 당시 현지 가이드는 다산뜨798에서 열리는 국제 예술 축제가 사라진 지오래라고 했다.

3시간여 거리 곳곳을 거닐었지만 문이 열린 작가 작업실은 찾기 어려웠다. 작업중인 작가 역시 당연히 없었다. 판매에 열을 올리는 사장과 점원, 그리고 이를 즐기는 관광객만이 그득했다. 화랑 사이 통로에는 중국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액세서리 판매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자유와 저항정신이 예술로 꽃피웠던 798예술구에 예술은 사라지고 상품만 남아있는 꼴이었다.

그나마 올렌스 동시대 예술 센터(UCCA ·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가 규모 있는 기획전을 선보이며 중국 현대 미술 작가들을 대거 소개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산뜨798는 예술의 발생지로 얻은 명성을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관광지로 간신히 그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역동적인 중국 현대 미술을 기대했던 관람객으로서 이 상업적 변화는 너무 안타까웠다. 하나 둘 떠밀리듯 떠났을 다산뜨798 형성 초기 입주 작가들은 얼마나 개탄스러웠을까.

## 도심 속 그들만의 섬, 차오창디 예술구

와이파이가 잡히는 다산뜨798의 한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불과 10년 전 저항정신으로 뜨겁게 달궈졌던 다산뜨798를 상상하며 짧은 시간 큰 변화를 곱씹었다.

곧 그마저도 부럽고 시샘하는 마음이 일렁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예술구 중 하나인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며 가늘게나마 중국 현대 미술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규모 기획전이 펼쳐지는 다산뜨798와 달리, 헤이리 예술 마을은 우리나라 방문객조차 발길이 뜸한데다 깊이있는 기획전이 부재하다는 주관적 평가 때문이다.

이어 방문한 '차오창디 예술구'에서도 문화를 산업으로만 대했을 때의 문제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안타까운 것은 차오창디의 '문제 있는' 위치였다.

차오창디 예술구는 북경시가 처음부터 예술특구로 계획하고 조성했다. 그런데 그 계획에 관람객의 편의성은 포함되지 않았나 보다.

재래시장과 낡은 집, 작은 공장 등 도심에 자리잡은 차오창디 예술구는 표지판 하나 간신히 찾을 정도

로 불친절했고, 현지 가이드가 시민들에게 질문해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고 또 물어 어렵게 찾아간 차오창디 예술구는 지나쳐온 회색빛 낡은 집과 고깃집 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현대적이고 깔끔하다'는 우리나라에서 찾은 사전 정보와 달리 붉은 벽돌을 높게 쌓아 완성된 전시 공간은 삭막함만이 가득했다.

각 공간마다 세계 각국의 현대 미술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중이었으며, 큐레이터(혹은 갤러리스트)와 중국어나 영어로 쓰여진 작품 서문(간단한 리플릿) 등 형식적인 면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마치 섬 같은 공간에서의 전시작들은 메아리 없는 소리처럼 그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짧은 일정에 차오창디에서 어떤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순 없었지만, 약 2시간 동안 도문화원연합회 연수단만이 해당 예술구를 찾은 관람객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철저하게 고립된 현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

세계 유명 화랑들이 다산쯔798를 뒤로 하고 찾은 예술구가 차오창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확고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채 대중은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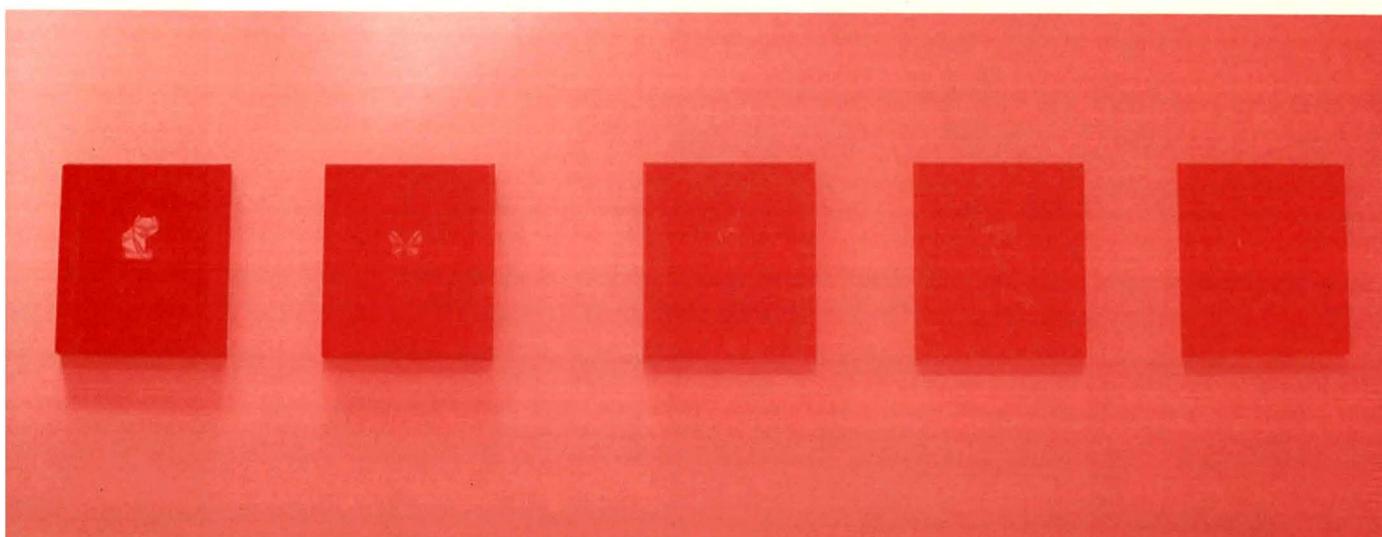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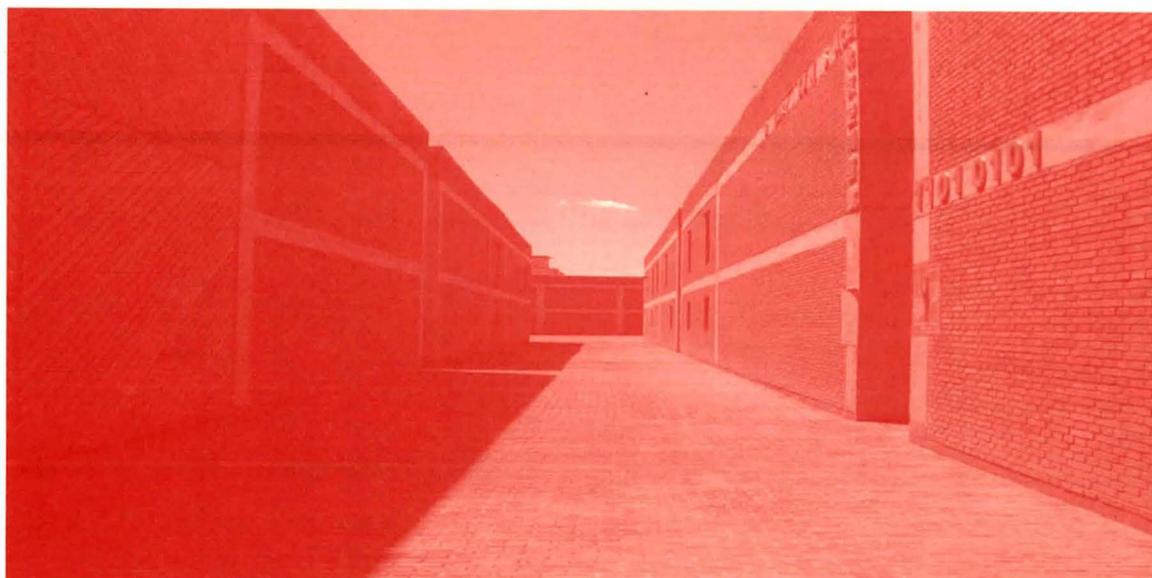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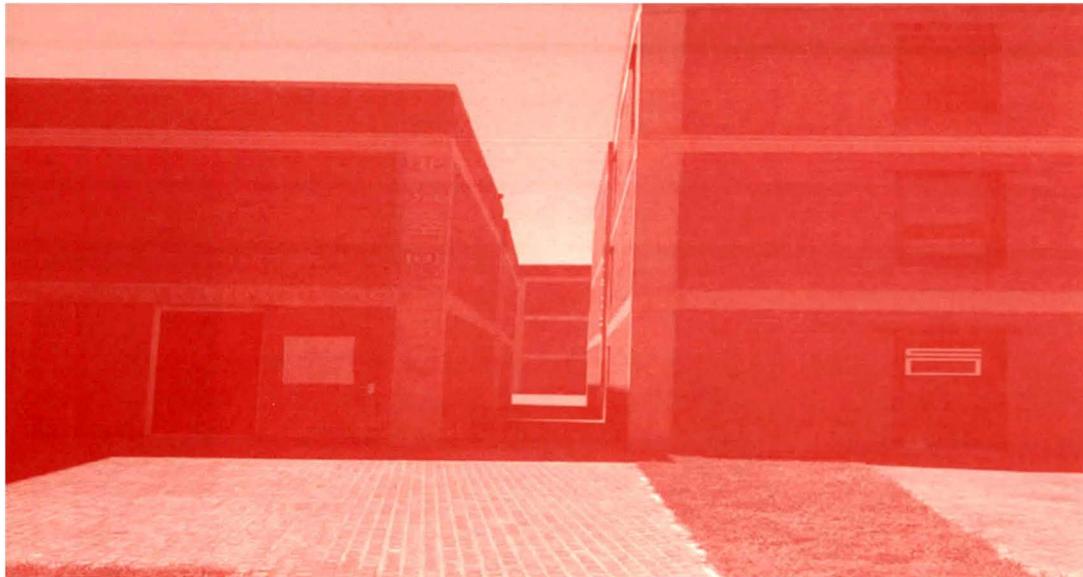
## 나오며

문화는 예술가들의 자생적 힘과 그것이 안정적으로 커질 수 있는 지원이 더해질 때 성장한다. 하지만 이 둘의 불균형은 곧 문화가 아닌, 예술가 개인의 자아도취와 배설로 전락하거나 빛좋은 개살구처럼 화려한 상품에 그칠 뿐이다.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들어 형성된 다산쯔798는 자생적 힘으로 놀라게 성장했지만 정부의 지원에 오히려 끝났다. 다산쯔798의 작가들은 떠났고 그와 함께 세계의 관심도 중국의 다른 도시로, 중국 아닌 다른 국가로 넘어갔다.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원으로 이뤄진 차오창디 예술구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 결국 공간을 끌고 나갈 사람과 힘이 없어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다.

중국의 대표적 예술구를 탐방하면서 필자는 또 지겹지만 도통 지켜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없는 '팔길'이 원칙과 예술가들의 창작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감했다.

그것이 곧 외면받고 쇠락한 우리나라의 각종 예술거리와 예술마을이 무조건 지켜나가야 할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줬다.





RUSSIA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 CHINA

베이징의 이색 풍경들

▶ 북경탐방기 1(골동품시장 등)

# 베이징의 이색 풍경들

## \_ 북경탐방기 1

이 곳에서 주민들과 관광객을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거리낌 없이 길을 건너는 사람과 한 발을 내딛었다 들어놓았다를 반복하며 장시간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

북경에서 길건너기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중국의 오늘은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처럼 곳곳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중국 전통의상을 벗고 화려한 현대식 옷차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일상을 사는 주민들에게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북경의 화려한 거리는 이미 익숙한 환경이 된 듯하다.

6월, 한낮의 온도가 40도가량 되는데도 거리에는 사람과 차, 그리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북적인다. 이곳은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무엇하나 자그마한 것이 없다. 과거와 첨단묘한 어울림과,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의 모습들이 독특하고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낯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묘한 낯설음을 느끼며..

### # 북경의 거리는 다이나믹하다!

지하철 10호선 쩐타이시짜오(金台夕照)역에는 아시아 최대의 스카이 스크린으로 유명한 더 플레이스(世貿天階/시마오티엔지에/The Place)가 자리잡고 있다. 폭 30m의 대형스크린이 쇼핑물 전체를 뒤덮으며 장관을 이루는 탓에 밤이되면 관광객 뿐 아니라 내국인들까지 발디딜 틈 없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최첨단 건물은 실로 중국의 자본력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 관광객들은 저마다 투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줄을지어 증명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내가 북경에 왔다구~!'

북경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판자위엔골동품시장[潘家園鼓貨市場 pan jia yuán]으로 이동하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의 바깥 풍경은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를 보는 듯하다. 높이 뻗은 화려한 빌딩들과 삼륜차, 그리고 강남패션의 멋쟁이들과 상의를 탈의한채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교통신호와는 상관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묘한 조화에 눈동자는 바쁘다. 이 반듯한 거리에서 당최 나타나지 않을것 같은 골동품 시장을 찾아 가는 동안 강남대로와 같은 넓은 도로에서 버스는 자연스럽게 유턴을 해버린다. 순식간에 도로가 마비되나 싶더니 버스에게 감사하듯 삼륜차와 오토바이가 뒤를 따른다. 북경은 무법천지인가? 아니면 관대한것인가?  
핀타이시짜오 역과 판자위엔(潘家園)역은 불과 네정거장.  
빠른 시간에 화려한 옷으로 갈아 입은 이들은 진정 나비가 될 것인가?  
이 짧은 거리의 북경은 실로 다이나믹했다.





## # 무엇을 상상하던...

넓은 공간에 자리잡은 판자위안 골동품 시장은 북경 3환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상해의 동타이루와 함께 중국 최대규모의 골동품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서적과 서예, 그림, 도자기, 문방사우 등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들이 있으며, 3천여 개의 노점상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중국 24개 성 전역 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특산품 등 실로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을 만날 수 있다. 급속한 현대화로 중국 전통의 물건들이 사라져 가면서 골동품 시장은 최근 몇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소장품을 전속투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경제발전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개방적 전사회투자자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군중의 투자열정으로 중국인들의 한탕심리가 작용한 것도 그 이유이다. 그러나 상품시장과 달리 골동품은 시장이 불투명하고 가격에 통일적 규범이 없어 생산과 수요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가치는 없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감상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골동품 시장에서 명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하지도 않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잡아든 도자기악기의 가격이 280위안(한화 약 5만원)에서 세번의 흥정으로 5위안(한화 약 900원)으로 떨어지는 경험은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공감!

중국최대의 골동품 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겉옷을 갖춰 입지 않은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지인들은 여기저기 흥정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무엇을 사고 있는 걸까? 어디서서든 큰 소리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 하는 그들의 당당함이 '예의 없음'의 시각에서 '특성을 살림' 이거나 '중국인 특유의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 # 소박한 화려함속으로 낯선이와의 조우

더운 곳의 밤거리는 어느 곳이나 화려한 법이다.

올림픽을 겪으며 대부분의 후통(胡同, 뒷골목)이 사라진 북경에서 그들의 삶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밤거리는 위험하다"는 현지인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들을 향해 한발짝 다가서기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캄캄한 거리에서 한참만에 만난 고소한 양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었다면 그들과의 조우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이다. 버섯이 가게를 두고 인도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모습은 익숙한 우리의 한여름 밤을 연상시킨다. 길가에서 양고기를 구우며 고소한 향과 매쾌한 연기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지나치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가게앞에 자리를 잡았다. 호객행위도 인도위의 조리기구도 없던 그 곳의 주인은 무슬림복장을 한 소수민족이었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역은 국토면적의 64%에 달한다. 다채로운 소수민족의 전통습속과 문화는 과거의 유산이나 관광자원이 아니라 현재적, 미래적 의미의 내포이다. 중국의 무슬림은 대략 4천만명 가량이며, 중국에서는 위구르족을 통해 전래되었다.

이슬람교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우위의 문화를 가진다.

종교적 믿음과 인간의 가치관이 합일된 생활양식을 가지기 때문에 신앙과 실천의 체계가 동일하다. 즉, 거저된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다.

말도 안통하는 관광객이 행어나 바가지를 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일행에게 누군가 한마디 한다.

'무슬림은 정직해!'

바디랭귀지와 한국인 특유의 친화력으로 음식을 주문했지만 생각과 다른 음식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

안감은 엄습한다. 하지만 답답한 우리나라 답답한 그들 모두 민망하기는 매한가지라 마주보며 웃는 것으로 민망함을 대신한다. 열너댓살쯤 되보이는 딸아이는 착하게도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말도 안통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심히 대접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궁금증 많은 우리에게 센스있게 대답도 잘한다.

눈을 보며 이야기 하는 것은 만국 공통어인 마음의 소통이다.

아이의 엄마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Vei를 두른채 묵묵히 가게안에서 일하며, 낯선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딸아이를 걷눈질 할 뿐이다.

무슬림은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서로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 관례를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 말도 안통하는 여자아이에게 질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저 웃으며 양고기를 굽던 아버지가 이해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싫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밤거리의 객들은 경계가 없다. 어둠과 함께 찾아온 선선함이 여유롭게 만드는 것일까? 낯선 이방인을 향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또 화답하며 박수를 친다.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짓는이 또한 있었다.

## # 새로운 것들의 탄생은 사라져 갈 것들에 대한 예고이다.

사람은 쉽게 적응하지만,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화려해진 북경의 거리, 그곳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고 편리한 것에 적응하지만 내면의 성숙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거대 관광도시 중국을 찾는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올 수 없는 역사의 뒤편길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재생산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다.



RUSSIA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 CHINA

베이징(북경)의  
과거와 현재를 말한다

▶ 북경탐방기 2 (자금성 등)

# 베이징(북경)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다

## \_ 북경탐방기 2 (이병권)

### 중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베이징

2013년 7월 3일 3박4일 일정으로 역사의 본고장 중국, 그 중심, 베이징에 갔다. 베이징에서는 자금성 등 세계인류문화유산인 주요 문화원형을 찾아 그 보존실태를 알아보고 아울러 이러한 역사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의 이용 등, 그 활용실태를 살펴본다.

베이징의 주요 탐방지는 베이징일대 소재 문화유산인 자금성, 장성(만리장성), 이화원 등을 살펴보고 자연유산인 용경협을 찾았다.

먼저 베이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자 베이징은 정식 명칭이 베이징직할시(北京直轄市)이며, 약칭하여 '징(京)'이다. 화베이평야(華北平野) 북쪽 끝에 있으며, 동남쪽으로 보하이해(渤海)와 150km 거리에 있다. 일찍이 아시아의 고인류인 베이징원인(약 75만 년전)이 베이징 인근周口店에서 발견되어 인류 태동의 본고장이다. 이후 역사시대에 들어와 기원전 전국시대에는 연(燕) 나라의 수도였으며, 연나라가 망하고 그 후 오랫동안 중국 변방에 머물며 북방유목민족과의 경계지로 있었다. 우리나라 고구려를 침략한 수양제(隋煬帝, 569~ 618년)의 백만대군이 지금의 북경인 탁군에 집결하였고, 북방유목민족의 패자가 되는 거란이 화북지방을 제패하고 요(遼)를 건국하면서 다시금 중국역사의 중심지가 되어 금(金)·원(元)·명(明)·청(淸)의 수도로 중국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

1911년 청왕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 초기의 수도였으며, 이후 수도가 난징으로 옮겨지고 1928년에 시(市)가 되어 '베이핑(北平)'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나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본토를 차지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삼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은 오늘날 중국 최대의 학술·문화 중심지이다. 중국과학원의 각 연구소를 비롯하여, 베이징대학교·칭화대학교·베이징사범대학·중국인민대학·중국민족학원 등 20여 개의 대학·전문학교는 물론, 전국 최대 규모의 베이징도서관·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및 민족문화궁(民族文化宮)·중

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등이 위치한다.

특히 고궁박물관은 명·청대의 자금성(紫禁城)을 박물관으로 만든 것이고, 중국국가박물관은 천안문(天安門) 앞 광장 동쪽에 1959년에 완공한 건물로, 같은해에 그 맞은편의 광장 서쪽에 건립한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국회의사당) 등과 더불어 중국이 자랑하는 10대 건축에 포함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방문하여 국가주석 시진핑의 환대를 받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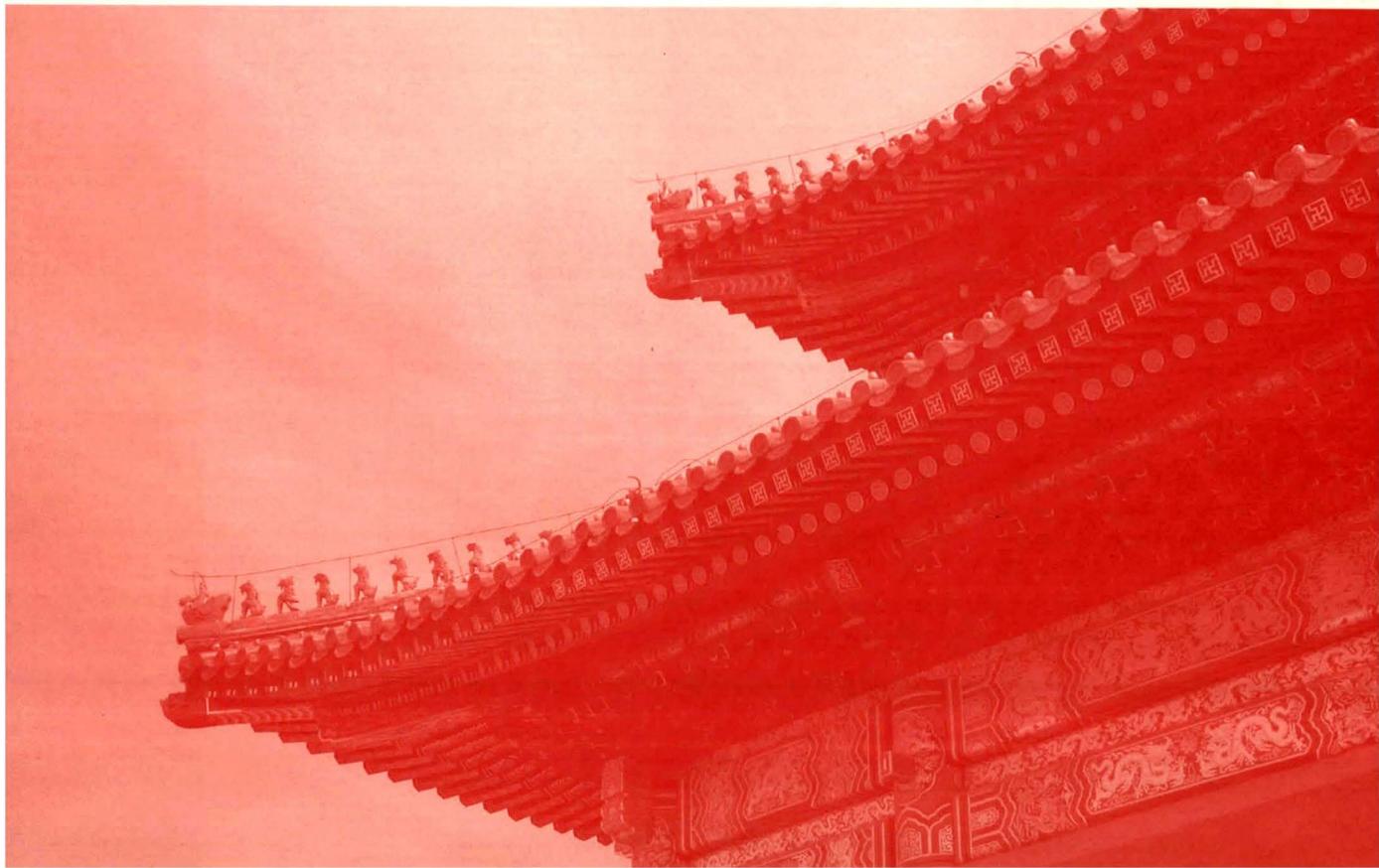
### 황제의 궁전, 자금성(紫禁城)

중국의 문화원형인 주요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찾은 곳은 자금성이다. 자금성은 중국 관련 영상이 나올 때 항상 큰 대문과 중국공산당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초상화로 유명한 천안문과 천안문 광장이다. 현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건의 현장이다. (1989년) 이 천안문이 바로 현재 자금성의 정문이다. 자금성은 원나라의 파괴된 대도 위에 세운 궁성으로 명·청시대 500여 년간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궁전이다. 1406년 명나라의 3대 영락제(永樂帝, 1360-1424년)가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쌓았다. 14년간 100만 명의 인부가 공사에 동원됐다. 사용된 건축 자재도 벽돌 1억만 개와 기와 2억만 개가 사용됐으며, 완성된 자금성에는 황실을 위해서 9천 명의 시녀와 1천 명의 내시가 함께 살았다. 현재의 자금성은 청나라에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성 내부는 정무를 위한 공간인 외조와 생활을 위한 내조로 나뉜다. 남쪽에 있는 외조는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에서 시작된다. 오문삼조(五門三朝)로 하여 북쪽 방향으로 태화문·태화전·중화전·보화전이 한 줄로 늘어서 있고, 그 동서에 문화전·무영전 등의 전각(殿閣)들이 뻗뻗하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규모는 작으나 이와 유사하다.

자금성은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일반에 공개되면서 과거의 궁전이라는 뜻에서 공식 명칭은 '고궁'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치 높은 담과 벽에 갇힌 감옥과도 같은 자금성을 거닐며 수많은 군중들이 서로 뒤엉켜 매우 힘든 답사였다. 특히 중국 인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답사의 의미는 우리와 사뭇달라 경내 무질서한 모습과 터무니없이 비싼 관람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낫다.



## 만리길 장성(長城)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만리장성일 것이다. 만리장성이란 우리나라가 부르는 명칭으로 중국에선 그냥 장성이라고 한다. 만리장성은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거대한 유적으로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곽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장성 넘어 만주지방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어불성설임을 증명하고 있는 유적이 바로 장성이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동쪽 끝 산해관의 장성을 압록강 하구 고구려 박작성까지 연결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까지 미쳤다고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장성은 길이 2,700km이며, 동쪽 산하이관(山海關)에서 서쪽 자위관(嘉峪關)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만리장성의 기원을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 기원전 259~210년) 때로 잡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춘추시대(기원전 770~443)부터 북쪽 변방에 부분적으로 성곽이 건축되고 시황제가 북쪽의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 성벽을 연결하고 증축한 것이다. 당시의 장성은 동쪽 요동에서 서쪽 감숙성 민현까지로 지금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다. 만리장성이 현재 위치에 처음 축성된 것은 6세기 북제(北齊) 시대이고 이후 명나라에서 15~16세기에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만리장성은 이중으로 축성된 곳도 있고, 성벽의 높이나 폭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서쪽보다는 동쪽이 견고하게 축성되어 있다. 성을 쌓은 재료는 벽돌과 전(磚), 그리고 돌 등인데 동쪽으로 갈수록 더 단단한 재료를 사용했다. 성벽은 높이 6~9m, 평균 폭은 위쪽 4.5m, 아래쪽 9m이다. 100여 m 간격으로 망루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 서태후의 안식처 이화원(頤和園)

중국 최대 인공정원 이화원은 금나라 때인 12세기 초에 처음 조성되어, 1750년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1711~1799년)가 대폭 확장하였다. 당시에는 청의원(淸和園, 칭이위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1860년 서구 열강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이후 서태후(西太后, 1835~1908년)가 실권을 쥐고 있던 1886년에 재건되면서 이화원(이허위안)이라고 하였다. 주로 이곳에서 수렵청정을 했던 서태후는 일시적인 피서와 요양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이화원에 각종 전각과 사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본격적인 국사를 볼 수 있는 궁전으로 변모시켰다. 이 때 이화원의 재건비용 때문에 청·일전쟁(1894년)에서 패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들었다.

이화원에는 거대한 인공호수와 60m 높이의 인공산을 중심으로 각종 전각(殿閣)과 사원, 회랑 등 3000여 칸의 전통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마치 바다가 연상되는 총면적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한 인공호수 곤명호(昆明湖, 쿤밍호)가 절경이다. 항저우(杭州)에 있는 서호(西湖, 시호)을 모방한 것으로 곤명호를 파낸 흙을 쌓아 북쪽에 약 60m 높이의 인공산 만수산(萬壽山, 완서우산)을 만들었다. 나라가 망할 때 거대 토목공사는 필수라더니 곤명호를 파고 만수산을 만든 서태후야말로 청나라 멸망의 일등공신이다. 저걸 만들기 위해 중국민중이 흘렸을 피눈물이 오죽하였을까.

이화원의 전각들은 곤명호 주변, 만수산 남쪽 기슭을 따라 위치한다. 특히 멀리서도 한눈에 바라다보

이는 불전 불향각(佛香閣, 푸시앙가오)는 6각형의 높이 21m로 우뚝 솟아 이화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전각이다.

또한 이화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각은 장랑(長廊, 창랑), 즉 긴 회랑이다. 길이가 778m, 273칸으로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긴 회랑이며,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 '중국 최대의 야외 미술관'으로 불린다. 중국 고전과 고사를 표현한 그림을 살피며 걷는 재미가 쏠쏠하였다.

이화원의 규모와 화려함은 중국 왕조가 가지는 황제의 권위와 힘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인들이 흘렸을 피눈물과 희생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문화원형은 황제로 대변되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민중의 고통이 점철된 특징을 가진다.

### 인공협곡 용경협(龍慶峽)

북경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함께 건조하고 모래폭풍이 잦은 북경사람들이 최고의 휴양지로 찾는 자연유산 용경협을 찾았다. 용경협은 베이징에서 85km 정도 떨어져 있다. 1973년에 계곡에 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인공 호수(저수지)로, 댐 높이는 70m이다. 유람선을 타고 주위 절경을 감상하는 데 총 8시간 정도 걸린다. 협곡의 좌우로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잇따라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까닭에 일명 작은 구이린(小桂林), 작은 삼샤(小三峽)로 불린다. 무더위에 지친 북경인과 북경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꼭 들르는 곳이다.



## 베이징의 오늘..

현재 북경은 첨담화를 기치로 높은 건물인 마천루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북경전체가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 넓디넓은 광활한 중원에서 좁디좁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리는 마천루, 이러한 대규모 건설현장을 보면서 오늘날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케 한다.

현대적 건물인 마천루를 올려 자국의 발전상을 시각화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적 특성을 찾고 그에 맞는 중국의 현대적 미학이 아쉬울 따름이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중국당국과 중국인민들의 태도 역시 아쉽다. 특히 세계적 관광지이자 인류 문화유산인 자금성 등 주요 문화유산들은 무분별한 관광객 입장과 그들이 지나치고 머물면서 엄청난 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공안과 경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들은 단지 문화재 보호가 아닌 관람료 징수를 위해 각 구간별 경비를 서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우리의 문화재 정책을 늘 비판적으로 보았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양반이네 생각이 든다.

조상의 찬란한 피눈물이 배인 위대한 문화유산, 즉 문화원형을 간직하였어도 그것을 어떻게 사유하고 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이다. 엄청난 인구로 자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과대포장, 관광을 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아쉬울 것이 없는 모습이지만 좀 더 성숙된 중국적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다.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의 삼복더위보다 뜨거운 북경, 타는 듯 날씨에 더해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경제를 대변하듯 엄청난 대기오염은 더운 날씨에 더해 힘든 고역이었다. 아울러 갑자기 휘몰아친 모래폭풍과 소나기는 북경이 처한 현재의 기후적 환경에 취약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처는 나무를 심어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거리 및 주택 등 인공조림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서 지난 5천년의 역사에서 치수로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발전하였던 중국.. 그들이 중원?중화로 자부해온 만큼, 미래의 중원?중화로 남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 및 질서가 확립되기 바란다. 그 옛날 중국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현대 중국인도 지금의 무질서하고 덜 성숙된 타자의 시각을 벗어나 현대 중국의 색깔과 문제를 중국적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 문화강국으로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길 고대한다.



# CHINA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다

ARCTIC

QUEEN ELIZABETH ISLANDS

★ ALASKA (UNITED STATES)

Part 4

이제 다시  
지역으로

★  
연수 합평회

HAWAII (UNITED STATES)

CANADA

UNITED STATES

MEXICO



SOUTH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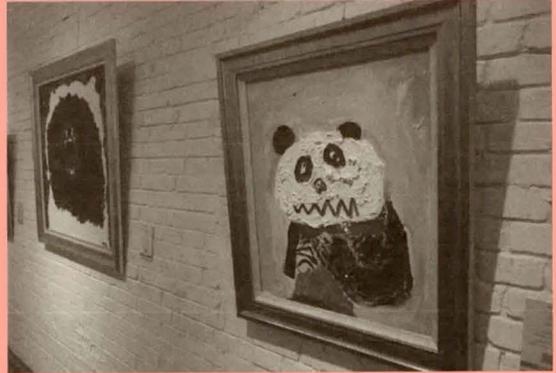
65

23 Isla de Pascua (Chile)  
(Isla de Ibañeta)

# 연수 합평회

일시 2013년 7월 30일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



## ★ 사무처장(최영주)

전체적으로 북경에 갔다온 느낌은?

##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껍데기는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93년도부터 북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많은 껍데기들이 변하는 걸 갈 때마다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것들이(신호도 안 지키고 윗옷을 벗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그런 껍데기의 문화가 내실은 못 따라가고 있나, 하는 것을 느꼈다. 잊고제 중국에 사는 조카가 왔다. 북경에 사는데, 내가 이번에 북경에 갔다 와서 보니 껍데기는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진데—93년도에는 북경도 큰길 벗어나면 도로포장이 안 되어있었다. 너무 많이 변했더라, 왜 아직도 신호를 안 지키고 그러냐, 했더니 지금 TV에서 캠페인을 한단다. 신호 지키자는 운동을. 그리고 93년도에는 북경에서 뉴스를 보면 첫머리에 맨홀뚜껑이 없어져서(흙쳐가서) 거기에 자전거타고 가다 빠져서 사고가 났네, 죽었네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은 사실 이십년 만에 하나도 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구석구석은 못 봤지만 옛날하고 표면상 변화가 크다. 그리고 이들은 무조건 대국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 지으면 크게, 넓게 짓는 그런 부분은 우리는 못 따라갈 것 같다.

### ★ 사무처장(최영주)

저는 중국이 이번에 처음이었다. 차오창디를 돌아본 후 더 팰리스, 명동 시내같은, 최첨단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을 갔는데, 더 팰리스 앞 사거리에서 버스가 말도 안 되게 유턴을 하던 모습에서, 묘하게 더 팰리스라는 공간과, 시민들의 의식, 차오창디로 가기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압축적으로 모여져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더 팰리스라는 곳에서의 경험이 북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다. 구성원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혼재하면서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 공간에서 버스가 그런 식으로 유턴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사람의 의식이 콘텐츠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걸 저도 매번 보면서 느낀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옛날에는 이중 가격제 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싸고, 외국인들은 비싸고, 이런 것들은 이젠 없어진 부분이다. 그리고 화장실 문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윗옷을 벗는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옛날에는 윗옷을 벗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과시였다고 한다.

###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저는 기본적으로 북경에 갔다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보다는, 기본적인 차이는 선조들이 남긴 유산의 차이이다, 그것 때문에 북경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고 예술도시가 됐는데, 그 기본적인 자산 외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 우리가 보고서 배울 게 아니라 그것을 밑바탕으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타산지석 삼아야겠다, 그런 대상이 중국이 아닌가 싶었다. 물론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나 기본적인 세계적인 문화유산 원형을 보유하고 예술지구라고 해서 현대미술이라든지 현대예술의 시점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기에는 많이 약하고, 소프트웨어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다. 게다가 현대미술이든 현대예술의 정책적인 부분이든 자생적으로 되었던 것들도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정책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이미 내부적으로도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인지도도 받쳐주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는 중국 미술시장의 거품은 이제 사라졌고, 그렇다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 것이냐, 결국 그런 부분들도—지금이야 관광 요소이면서 예술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지만—향후 3년 정도 내에는 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북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사례를 찾아야 될 것 같았다.

####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그렇다. 798예술구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요즘 ‘문화마을’이라 하면 전부 벽화를 그린다. 80년대에 벽화를 그리면 운동권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벽화를 그리면 빨갱이,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은 사실 미술계에서는 이단아로 생각하는 약간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해 나가면서 그것들이 나중에 자본주의에서 좋은 것들만 본 따서 간 것 같다. 798예술구도 중국의 선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령을 했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서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한국에서도 80년대에 해왔다. 요즘 벽화는 문화마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798예술구도 중국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을 했는지 빌려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798예술구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니 이제 전 세계 자본가들 눈에 딱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봤을 때는 초기의 의식적 사고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작품을 팔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고, 초창기에 있던 사람들은 ‘작업’을 하기위해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작업실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같이 그림을 보고 논의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참 좋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시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 문 앞에서 기웃기웃 하면, 한국 작가들 100이면 99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하면서 오픈을 하는데, 798예술구에서는 문을 닫아버리더라. 작가들도 중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았다.

####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798예술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이 폐허가 됐던 공장 단지에 들어갔던 거고 사회운동적인 맥락이 됐던 거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 특유의 역사성과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가들이 한두 명 씩 모이니까 레지던시의 개념으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1년에 한번 씩 축제도 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행사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 불과 2, 3년 사이에 그런 작가들은 주변의 빈 공간으로 떠났거나, 이에 외국으로 나갔다고 한다.

★ 사무처장(최영주)

그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자본이 들어오면, 그 공간이 자본에 의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의 정신이 자본을 통해서 없어져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대까지만 해도 민중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최고로 치면서 예술가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 창조적인 생각들을 가지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798 예술구에 있던 초창기 멤버들은 어땠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798이 처음보다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가들 본인의 마음과 의식이 변한 내 자신이 싫어서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반사회적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장이 되어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이다. 그래서 798예술구도 무장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기의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닐까.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특히 사회성을 읽기란 힘들었다. 힘든 게 아니라 읽을 수 없었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그냥 인사동, 아니면 강남 화랑가 정도.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그곳들이 A급이라고 하면 북경은 B급, C급 정도의 모습이랄까. 굳이 여기에 와서 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그래도 중국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는 점, 돈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이 기획전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세계적인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자본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가 스스로의 자괴감과 반성에서 떠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가 공통 적일 것 같은데 지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갤러리들이 들어와서 내가 당신의 작업을 지원해줄게요, 당신은 작업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 지원을 받는 순간 결과물을 내야하고 갤러리들은 그것을 팔기위해 활동을 하다 보니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작가로선 쉽지 않다. 예전처럼 고민해서 새로운 창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스스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갤러리들은 중국 특유의 작가들을 섭외해서 장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정부가 되었든, 상업 자본주의적인 갤러리들이 되었든 지원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현대미술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지만 사실 한국의 작은 갤러리에서도 볼 수 있는 류의 작품들이었다. 올해 1월에 가서 봤을 때랑 이번에 봤을 때랑 평면작품이든 설치작품이든 미디어작품이든 세계적인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디서 본 듯한, 중국특유의 것이 오히려 사라진 작품들인 것 같았다.

####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동의한다. 사회성 측면을 고려했던 게, 역사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 중국적인 게 없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다.

####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열댓 군데 정도 갤러리 작품들을 봤을 때 실험정신을 갖고 있는 작품은 하나도 없었다. 판매하기 좋은 그림들, 소위 말하는 '잘 그렸다,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전에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열렸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이없는 그림들,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험성 있는 작품인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품인가에 대한 고민거리를 제공을 했었다. 그런데 저는 798예술구의 갤러리를 열군데 넘게 다니면서 그런 고민거리가 있는 그림은 본 적이 없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부분의 갤러리를 보지 않았나 싶다.

####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저에게는 798예술구의 이미지가 상점, 갤러리보다는 상점의 이미지가 더 강했다. 그리고 중국은 빌딩 문화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중국적인 특징을 살려서 건축을 할 수도 있을 텐데—예를 들면 파리만 봐도 고층이 없잖느냐. 유럽 유수의 도시들이 중국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통이 남아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층빌딩문화가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 신도시개발 하는 곳들은 거의 우리나라를 모방하듯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중국적인 것을 살려서 가야 하는데, 중국에서 대표적인 예술구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을 가보니 중국적 요소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것이다.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올림픽 한다고 해서 후통(골목길)을 다 없애버렸나?’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다. 북경에 제일 처음 외국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후통들이었다. 이번 올림픽 때문에 70퍼센트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맞다. 남아있는 곳이 조금밖에 없다. 1월에 체험을 했었다. 그곳에서는 정말 중국의 일상풍경을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옛날 사진도 보고 얘기도 하다가 나왔는데—그때 참가비로 1~2달러 정도 사례를 하고 나왔다— 그곳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했다. 지금은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많이 사라졌다. 798예술구도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헤이리처럼 돼버렸잖느냐. 그런데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차오창디 예술구는 현대미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완전히 798예술구를 지양하면서 만든 곳이다.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건물들과 지리적 거점 자체가 폐쇄적이다. 형식만 쫓는 정부의 정책을 눈으로 봤던 것 같다.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정말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60~70년대 개발논리를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가이드에게 ‘왜 좋은 후통을 다 없애버렸을까?’ 라고 했더니 ‘우리도 멋지게 건물들을 지어놓고 잘 살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라고 의외로 반문을 했다. 그래서 ‘아니다. 한국에 가면 서울에 북촌이라는 동네가 있다. 북촌을 보존하려고 우리는 뒤늦게나마 노력하고 있다.’ 라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깨어있었다면 4대문 안은 그냥 뒷어야 한다. 지금 파리가 그런 거다. 파리도 외곽에는 빌딩이 다

들어서 있지만 중앙 도심은 그대로 살리고 있다. 우리의 4대문 안도 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의 개발논리에 의해 옛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잖느냐.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그런데 그 개발논리의 제일 피해자는 경기도 아닌가?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그렇다. 그런데 이미 일제시대부터 우리 것은 낙후된 것, 천박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파괴됐다고 봐야한다.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면, 문화원이든 재단이든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곳에서 자꾸 새로운 하드웨어를 생산하기보다는 근·현대에 생겨난 것들이라도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 차이나타운 내에는—물론 일본인이 지은 것이지만—근대의 건축물들을 다 살려서 소소한 박물관으로 만들고 관련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박물관이나 기록실로 운영하고 있더라.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내부 사정으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자세는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다. 경기도에도 분명 그런 곳들이 있는데 지역의 인물을 기린다고 하면 꼭 그것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런 것 보단 인천처럼 더 옛날의 것들은 못 지켜지만 근·현대의 것이라도 지켜가려는 메시지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저도 중국에 가서 확실하게 느낀 점은 문화원형이다 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의 추구를 많이 얘기하는데, 원형 자체만이라도 지켜야 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 중국의 문화정책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국의 접근방식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관광이나 서비스측면에서 접근하는 쪽이 크다고 하면 중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형태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인원제한도 두지 않고 오히려 구간별로 계속 입장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가고, 보존과 관리는 더욱 힘든 거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에 상응하는 관리인들도 있었는데 관광·유적지에 배치되어서 하는 활동이 돈을 받는 데에 집중되어 있더라. 그런데 예전에 동북3성 만주, 하얼빈 일대를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

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문화원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 하지, 이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의 시민들은 어쨌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자금성은 가 봐야 한다, 만리장성은 가 봐야 한다—특히 장성은 중국에서 최고로 치는 등소평이 남자가 태어나서 장성을 한 번 올라 봐야 한다, 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늘었다—라는 내수가 있으니까 관광객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개선하든지 문화재를 더욱 보존하고 원형을 복원하든지의 노력들이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가 갔던 자금성이나 장성이나 이화원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게다가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두 번 다신 안 갈지언정 한번은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관광객을 끌려는 별도의 노력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처음 북경에 갔을 때 열흘을 돌아다녔어도 북경을 봤다고 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케이블카 탄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가까운 거다요. 정말 장성을 제대로 보려면 팔달령 구간을 오르내리면서 봐야 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곳을 한 번씩 더 간다든지 말이다.

####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자금성 같은 경우, 역사성을 가이드의 의견으로만 들여야 했다. 예를 들자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외국인인 보기에는 자금성과 규모도 작고 중국과 같은 동양인이 만든 성이라고 했을 때, 만리장성을 보러 가지 화성을 보러 오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리장성과 차별화 되는 지점은 깨끗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주말이면 조선시대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궁중무예 시연을 한다든지 자꾸 콘텐츠를 채워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복원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쉬운 게 너무 무료인 곳들이 많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입장료로 많은 돈을 내야하고 하물며 불친절한데,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에게는 친절하고 무료입장인 곳들도 많으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올리지 못하면서 내국인에게만 못하고 있다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다. 제가 볼 땐 정책적인 무게 중심이 조금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 중국에 갔을 때도 고민이 났었다. 자금성은 하루를 돌아도 다 못 보는 곳인데 우리는 두세 시간 만에 보고 나왔다. 현재는 없지만, 양쪽에 전시관들이 있었는데 중국 황실의 궁중 문화를 볼 수 있게 해 뒀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하다 해서 사라지고, 관광객들에게 돈

을 받고 한번 둘러보고 나가게 바뀌었다. 그런 모습이 중국의 현실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규모에서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전시 이런 쪽을 많이 하면서 관람료를 제대로 받아서 가치를 평가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그래서 가이드정책에 손을 많이 대야 할 것 같다. 중국을 너무 왜곡되게 묘사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고, 반대로 중국을 그렇게 소개하는 가이드가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을 때 모습을 생각해보면 기대할 게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와 역사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가이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수원 화성에 오면 볼 게 없다고 하지만 실은 볼 게 참 많은 곳이다. 자금성을 그냥 규모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커다랗기만 한 것 같은 건물에도 문양이 새겨져 있고, 색깔도 달리한 점도 눈에 띄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볼 수는 없었지만 가이드에게서 그러한 설명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역사지식만 계속 나열을 했다.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그렇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얘기를 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 경기일보 문화부 기자(류설아)

가이드의 정책도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 더 인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실버층을 자주 활용해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문화해설사와 가이드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 사무처장(최영주)

그러면 다음 연수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최의열)

일정에서 하루정도는 '민생투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한다. 여행사에서 정해진 패키지 말고 일정을 정할 때 우리도 미리 정보를 가지고 여행사와 일정을 조율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여행을 공개 모집 한다든지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다.

#### ★ 시흥문화원 계장(이병권)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는 기획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정된 패키지를 피하고, 패키지라면 일반 관광객들과 다를 바 없는 형식은 아니었으면 한다.

## 함께 한 사람들

**총괄**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기획운영**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운영지원** 장세영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과장)

####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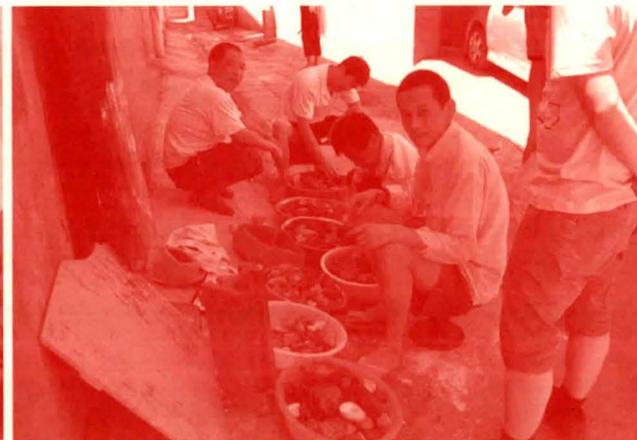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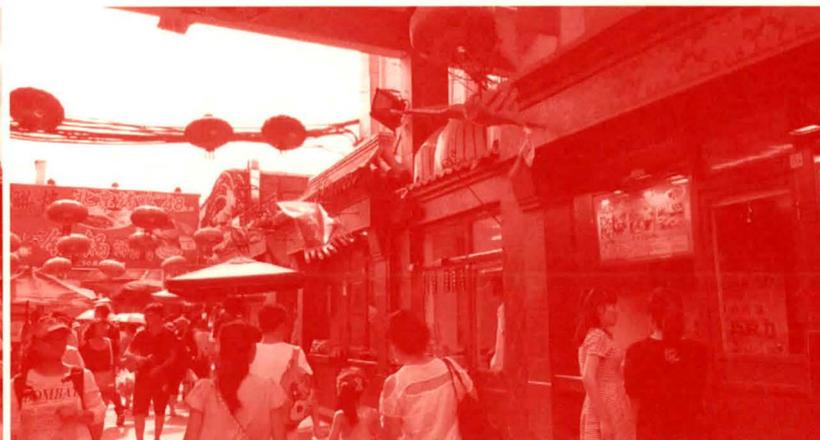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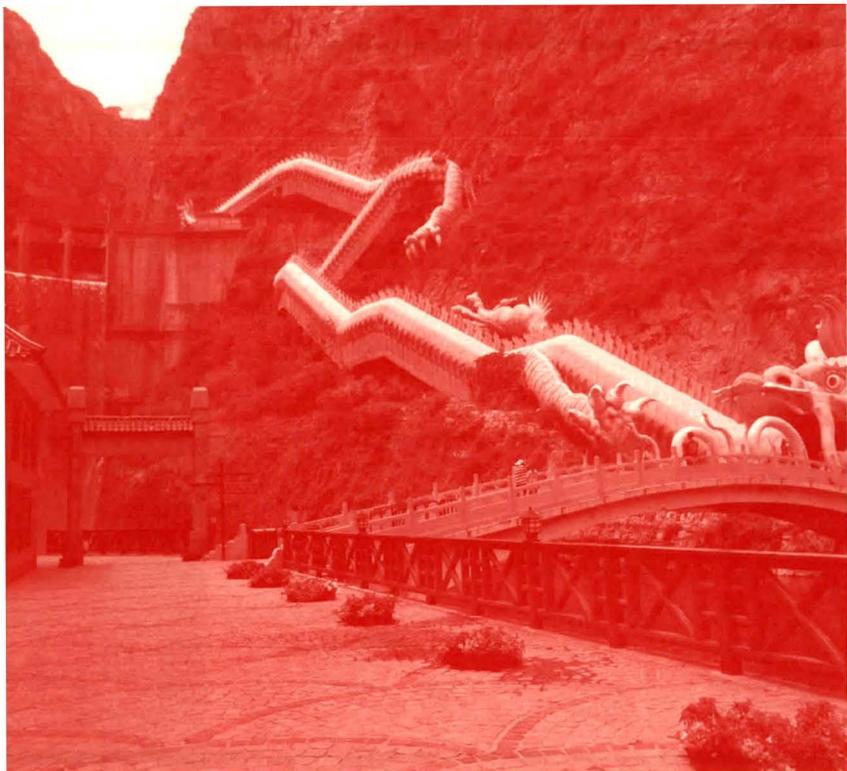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조정현 가평문화원장 신현분 수원문화원회원 이용복 남양주문화원장 이하준 김포문화원장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조명호 이천문화원장 김봉식 안산문화원장 임명재 오산문화원장 이영희 광명문화원장 최인섭 광명문화원회원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우호철 화성문화원장 안민규 동두천문화원장 김순이 동두천문화원회원 방규동 고양문화원장 이순자 고양문화원회원 박계일 군포문화원장 김문영 여주문화원장 장재찬 양평문화원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장세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과장 장혜정 경기도문화원연합회기획팀장 이홍귀 가평문화원사무국장 박용철 동두천문화원사무국장 윤승민 구리문화원사무국장 유종대 오산문화원사무국장 김경민 포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부천문화원사무국장 오민영 평택문화원사무국장 이병권 시흥문화원계장 김수정 연천문화원과장 오경영 광주문화원과장 정선희 광명문화원팀장 류설아 경기일보기자

## 남는건. 사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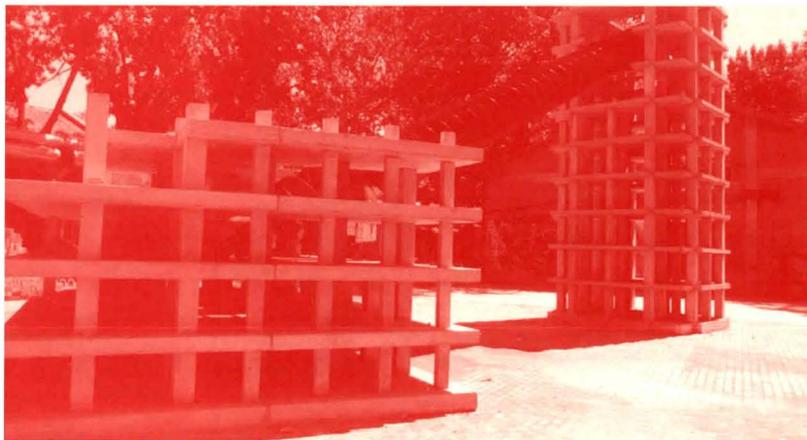


북경의 문화원형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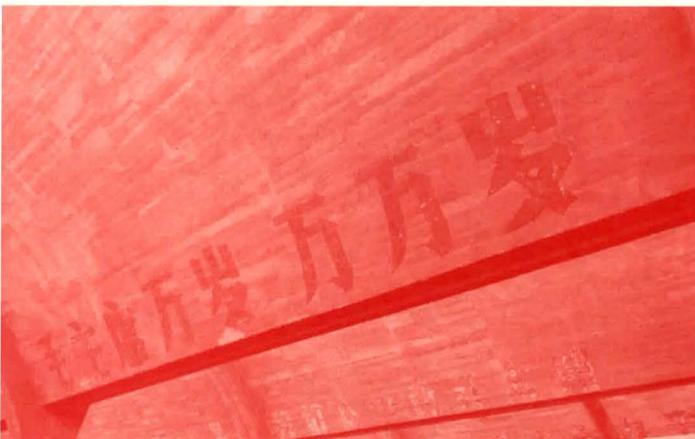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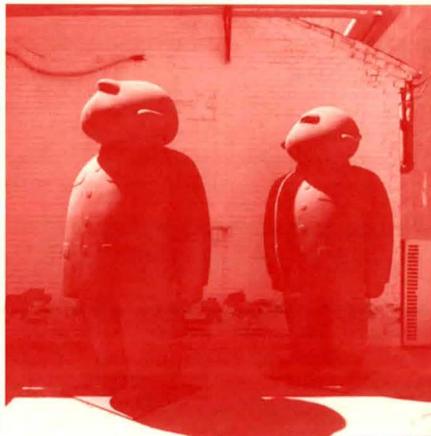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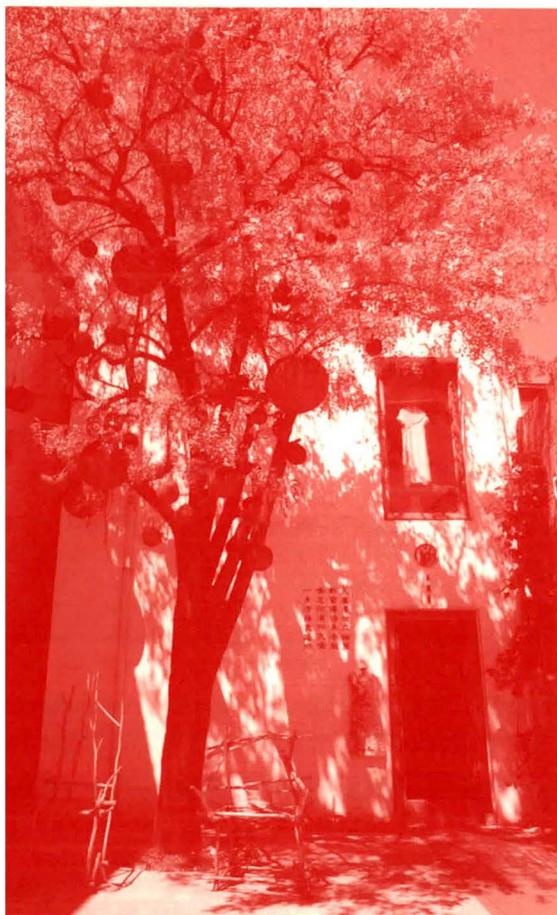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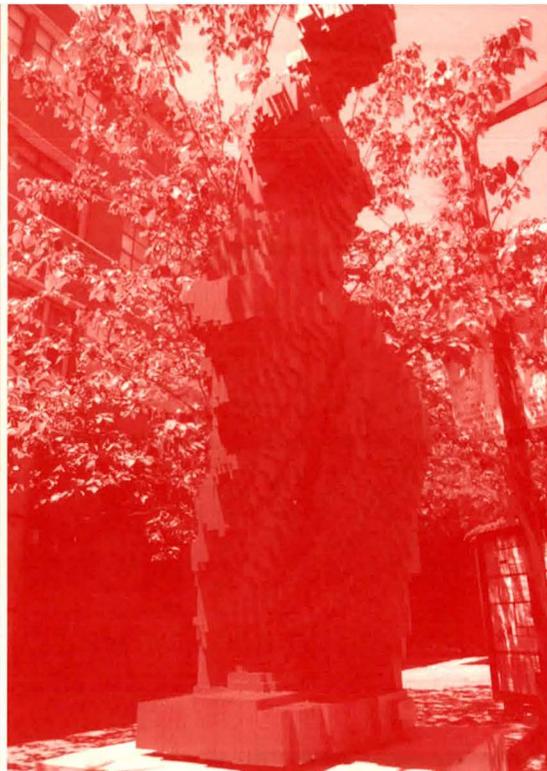


## 남는건. 사진. 뿐이다.



798예술구, 중국 현대 미술의 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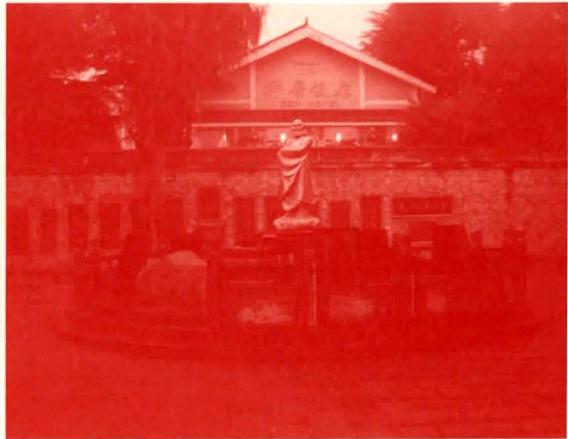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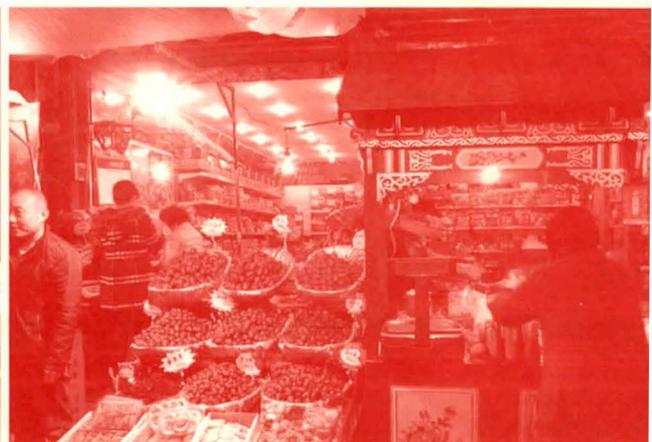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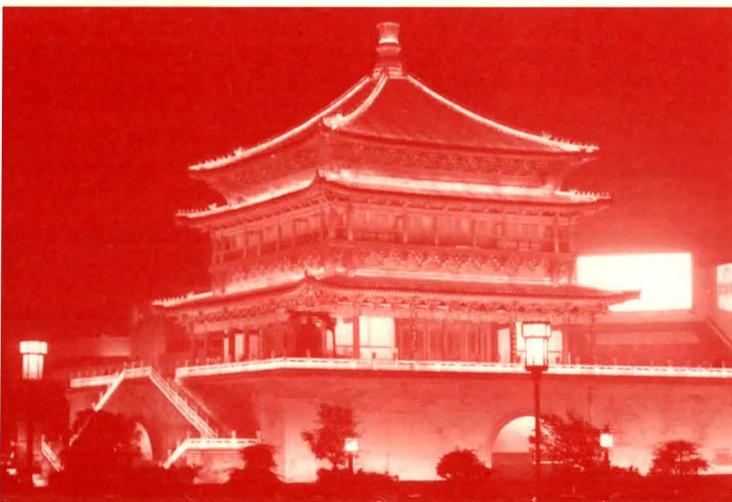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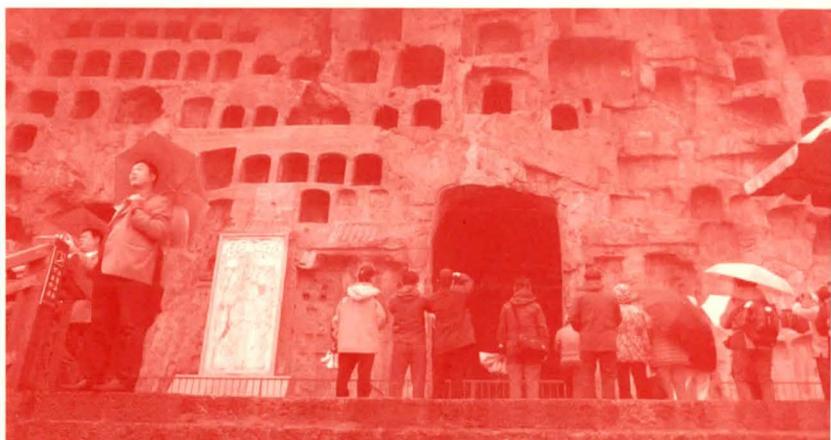


## 남는건. 사진. 뿐이다.



서안, 중국의 고대 도시를 거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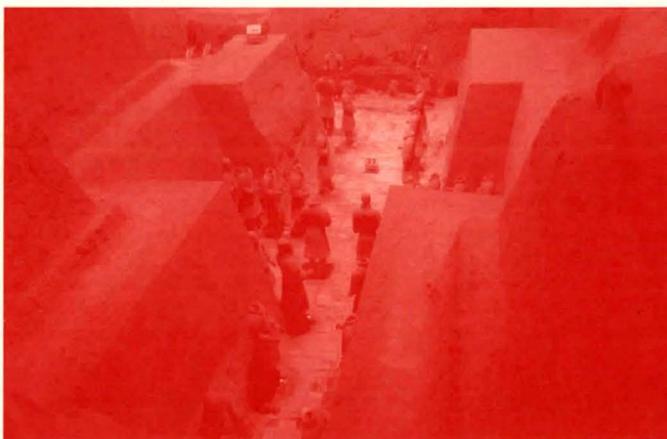




## 남는건. 사진. 뿐이다.



옛 중국 역사의 현장에서







2013년 경기문화재단지원 해외연수

경기도지방문화원

**동양문화의 원류原流를  
찾아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본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문화재단의 허락없이 무단도용할 수 없습니다.